

朝鮮朝 經筵에서 孝宗의 讀書歷 考察*

A Study on the Hyojong's Reading Career in the
Gyeongyeon(經筵) of Joseon Dynasty

金 重 權 (Kim, Joong-gwon)**

◁ 목 차 ▷

- | | |
|----------------|------------------|
| 1. 緒 言 | 3.3 夕講 |
| 2. 經筵制度 및 讀書日程 | 3.4 夜對 및 召對 |
| 3. 讀書回數 | 4. 孝宗의 性格 및 讀書態度 |
| 3.1 朝講 | 5. 結 言 |
| 3.2 晝講 | <참고문헌> |

< 초 목 >

본 연구에서는 조선조 17대 왕 孝宗의 讀書歷을 파악하기 위하여 實錄을 통해 재위 10년간 그의 독서행태를 일정별로 분석하였다. 효종은 인조가 죽자 31세에 왕위에 올라 모든 제도를 재정비한 뒤 경연제도에 따라 3講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체계적인 3講은 실시하지 못하고 간간히 晝講과 召對에 치중하였다. 父王인 仁祖와 마찬가지로 독서에 관심이 없었다. 재위 10년간 읽었던 책은 『大學衍義』, 『中庸』, 『書傳』, 『詩傳』, 『心經』 등 5책이 전부였다. 더구나 『大學衍義』는 夕講이나 夜對를 거의 하지 않아 완독하지 못했다. 독서 회수는 朝講 20, 晝講 384, 夕講 40회, 夜對 및 召對 75회로 나타났다. 재위 8년 이후부터는 3講을 실시하지 않고 召對만 실시하였다. 그 원인은 국내문제, 국외문제도 있었으나 성격상의 문제 등으로 경연관을 기피하는 데 있었다. 孝宗 역시 父王에 이어 최하위의 讀書歷을 나타냈다.

要語: 經筵, 孝宗, 『大學衍義』, 『中庸』, 『書傳』, 『詩傳』, 『心經』

* 본 논문은 2016학년도 광주대학교 대학연구비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 광주대학교 인문사회대학 문헌정보학과 교수(jkim@gwangju.ac.kr)

접수일: 2016년 5월 30일 최초심사일: 2016년 6월 14일 심사완료일: 2016년 6월 25일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Hyojong's reading career in the Gyeongyeon (經筵) of Joseon Dynasty. To investigate the Silrog (the book which records the history of Korea), it knew the reading material, a reading act and attitude which he read in the Crown prince time.

Major findings are as the follows ;

The reading materials that he read for 10 years were 5 titles, that is, *Jungyong* (中庸), *Seogyeong* (書經), *Sigyeong* (詩經), *Simgyeon* (心經) and *Daehagyeonui* (大學衍義). The number of times that he participated to the Jogang's reading discussion was 20, and the Jugang (晝講) was 384, Seoggang (夕講) was 40, Yadae (夜對) and Sodae (召對) was 75. He was the king who disliked reading, from 1649 to 1659, when he was in power, moreover he was not almost presented at the reading discussion of the Gyeongyeon (經筵) at the end of seizure of power. As a result, Hyojong's reading career was much lower than the late king's reading career.

Key words: Gyeongyeon (經筵), *Daehagyeonui* (大學衍義), *Jungyong* (中庸), *Seogyeong* (書經), *Sigyeong* (詩經), *Simgyeon* (心經)

1. 緒 言

효종은 인조(1595-1649)와 인렬왕후 한씨(韓浚謙의 딸; 1594-1635) 사이에서 1619년 5월 22일 亥時에 둘째아들로 태어났으며, 이름은 溟이고, 字는 靜淵이다. 8세에 鳳林大君에 봉해졌으며, 1631년 우의정 新豐府院君 張維의 딸과 혼인하였다. 을해년(1635) 모친 인렬왕후가 승하한 다음 해인 병자년(1636)에 청이 쳐들어와 수도가 함몰당하고, 정축년(1637) 삼전도에서 인조의 굴욕적인 항복 후 2월에 형 昭顯世子(1612-1645)와 함께 인질로 瀋陽으로 끌려갔다. 8년간의 인질생활 끝에 1645년 소현세자가 입국한 지 두 달 후 갑자기 죽게 되자 9월에 세자책봉을 받았다. 1649년 5월에 인조가 죽은 후 31세의 나이로 조선 제17대 왕으로 등극하였다. 등극하자마자 김자점 등의 친청세력을 몰아내고 김상헌, 송시열 등의 반청세력을 등용하여 북벌정책을 강화하였다. 그 강화책으로 어영청을 개편하고, 훈련도감 및 속오군 등을 강화하여 대대적인 북벌계획을 세웠다. 또한 모든 관계를 재정비하면서 부왕이 등한시한 경연제도를 부활하고 三講二對(조강, 주강, 석강, 소대, 야대)를 실시하였다. 초기에는 하루도 결석 없이 경연을 열어 독서하면서 문신들을 만나려고 노력한 왕이었다. 집권말기에 가면서 3강은 거의 하지 못하고 소대만 한 달에 2, 3회씩 실시하며 독서하는 정도였다. 결국 불행하게도 효종은 수명이 짧아 재위 10년 만에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 그 길지 않은 기간에 자신의 수양과 국가발전을 위해 어떤 책을 읽었고, 독서토론 대상자는 누구였는지, 또한 그의 독서 행태 등이 어떠했는지 아직까지 밝혀진 바 없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먼저 재위 년도 별로 그가 읽었던 책과 독서토론에서 학문적인 대상자가 누구였는지, 어떤 행태로 독서했는지를 조사하여 그의 독서력을 밝혀보고자 한다.

2. 經筵制度 및 讀書日程

인조가 재위 27년(1649) 5월 8일 승하하자 5일 후인 5월 13일에 왕위에 올랐다. 초기에는 국상준비 등으로 정사에 관여하기가 어려워 졸곡 전까지 영의정 김자점과 좌의정 이경석 등에게 정무를 맡기었다. 다음 날 그의 사부였던 金尙憲, 宋時烈, 崔蘊 등 원로들을 초청하여 모든 정무를 준비하면서 관제를 재편성하도록 하였다. 그 와중에 6월 10일 사간원 소속 헌납 洪處亮, 정언 許悅 등이 졸곡 전에 경연을 열어 독서하고 신하들을 접견하도록 건의했으나 효종은 인정상, 예의상 할 수 없으니 경솔히 하지 말라고 하였다.¹⁾ 결국 경연은 졸곡 이후로 미루어지게 되었다.

즉위년(1649) 8월 4일에는 부제학 呂爾徵을 해직하고 趙壽益으로 임명하여 경연을 준비하도록 하였다. 당시 李景奭을 영상, 金尙憲을 좌상, 金重鎰을 부교리로 하였다. 2개월도 안되어 다시 10월 1일 부제학이었던 趙壽益을 閔應亨으로 교체하고, 韓興一을 지경연, 林潭, 金南重 등을 동지경연으로 임명하였으며(실록에는 10월 13일조에도 임명사실이 기재됨), 10월 4일 趙綱을 지경연사로 임명하였다. 경연관 임명이 모두 끝난 다음 날 10월 5일에 홍문관에서 경연과목으로 조강과 주강에는 『中庸』, 석강에는 『大學衍義』로 선정하여 효종에게 보고하였으며,²⁾ 10월 20일에는 경연규정을 보고하였다.

경연 구분은 조강, 주강, 석강으로 정하였으며, 수시로 강관을 불러 독서토론할 수 있도록 소대와 야대를 마련하였다. 조강과 주강에는 동일한 과목으로 독서하고, 석강에는 별도의 과목이 설정되었으며, 소대와 야대는 별도의 책을 배정하지 않고 3강에서 이해하지 못한 부분을 복습하는 형식이었다.

경연에 참석 대상은 전 왕조와 같이 부제학 및 홍문관 강관 외에 영경연사, 지경연사, 동지경연사, 특진관, 참찬관, 사관 등이었다. 이들은 10월 23일 주강을 마련하여 시강관 金徽, 특진관 金集 등과 『中庸』의 序文을 강독한 것이 경연의

1) 『朝鮮王朝實錄』 孝宗. 卽位年 6月 10日(戊戌) 卷1. 冊35. p.370.

2) 『朝鮮王朝實錄』 孝宗. 卽位年 10月 5日(庚寅) 卷2. 冊35. p.393.

시작이었다.³⁾ 효종 즉위년에 처음으로 독서한 시기는 즉위년 10월 23일이다. 당시 『中庸』 서문을 시작으로 12월 27일까지 26장을 읽었다. 독서시간을 보면 아침 독서는 한 번도 없었고, 낮 독서만 10월 3회, 11월 10회, 12월 10회를 실시하였으며, 저녁독서는 『大學衍義』로 12월 3일 1회만 실시하였다. 경연의 책임자는 부제학 閔應亨이었다. 즉위년 경연에 참여한 경연관 및 대신들은 송준길, 이조판서 金集, 특진관 尹履之, 동지경연 林潭, 동지경연사 鄭弘溟, 참찬관 金益熙, 검토포관 尹鏞, 응고 金應祖, 검필선 趙贊, 부수찬 鄭斗卿, 시독관 趙復陽, 검토포관 金佐明, 지경연사 韓興一 등이었다.

11월 2일 효종은 경연에 대신들이 모두 참여토록 했으며,⁴⁾ 11월 18일에는 대사헌 金集을 경연에 입시하도록 하되 先朝 때 鄭經世처럼 예우하도록 하였다.⁵⁾ 인재를 발굴하여 글 읽으면서 국가운영에 도움을 청하고자 했던 것이다. 金集뿐만 아니라 송준길, 송시열 등이 대표적 인물이다. 12월 6일 중용 20장을 읽으면서 당시 부제학 閔應亨, 검토포관 金佐明, 이조판서 金集이 자리를 같이하였다. 다른 경연관들은 말을 많이 하는데 金集만이 말이 없자 효종은 金集에게 다음과 같이 의견을 물었다.

효종: (김집을 돌아보며) 경만이 말이 없으니 무엇 때문인가?

김집: 20장은 費隱과 小大를 견해 포괄하여 말한 것으로 12장의 뜻을 여기에 서 모두 결론지은 것입니다. 修身 공부는 바로 九經의 근본입니다.

효종: 경이 들어오면 듣지 못한 말을 들을 수가 있으니 매우 추운 날이 아니면 자주 들어오라.⁶⁾

金集(1574-1656)은 김장생의 아들로 태어나 선조, 광해군, 인조 때 서인의 지도자 역할을 했으며, 소현세자의 죽음에 의혹을 제기하고, 김상헌, 안방준 등과 북벌론을 주장한 인물이다. 송준길, 송시열 등이 그의 문하생이었던 것으로 보면

3) 『朝鮮王朝實錄』 孝宗. 卽位年 10月 23日(戊申) 卷2. 冊35. p.395.

4) 『朝鮮王朝實錄』 孝宗. 卽位年 11月 2日(丁巳) 卷2. 冊35. p.396.

5) 『朝鮮王朝實錄』 孝宗. 卽位年 11月 18日(癸酉) 卷2. 冊35. p.404.

6) 『朝鮮王朝實錄』 孝宗. 卽位年 12月 6日(庚寅) 卷2. 冊35. p.407.

효종의 신임을 굳게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효종 1년(1650) 1월에도 주장만을 실시하였다. 1월 4일 지경연 趙綱 등과 함께 『中庸』 27장을 읽었으며, 1월 8일 28장, 21일 執義 宋時烈과 29 - 30장, 22일 31장, 24일 32장, 25일, 26일 33장을 마지막으로 완독하였다. 『中庸』을 완독하는데 3개월이 소요된 것이다. 1월의 부제학은 趙錫胤이었다.

『中庸』을 완독하고 12일간 휴식을 취한 뒤 2월 9일부터 새로운 책 『書傳』을 선정하여 「序文」을 읽었다. 2월엔 9, 11, 12, 19, 21일까지 총 5일을 『書傳』 「序文」과 「堯典」편을 읽었으며, 그 장소에는 시독관 金佐明, 지경연 韓興一 등의 경연관이 참석하였다. 2월 22일부터 4월 2일까지 경연은 없었다. 4월 3, 4일 양일간 홍문관의 경연관을 불러 『大學衍義』를 읽고 그 내용에 대해 토론하였다.⁷⁾ 4월 5일에도 소대하여 『大學衍義』는 읽었으나 5월 24일까지 3강은 열지 않았다. 2월 22일 이후 중단되었던 주장이 5월 25일부터 다시 이어지면서 당일 「堯典」을 완독하고, 26일부터 주장에서 「舜典」 독서를 시작하여 7월 2일까지 읽었다. 5월 25일 석강에서는 『大學衍義』를 읽고 효종은 참여한 경연관들과 光武帝는 讖緯說에 미혹되고, 梁武帝처럼 독실하게 불교신자인데 참혹한 화를 당했다는 부분에 대해 논의 하였다.⁸⁾ 당시 참여했던 경연관 및 특진관은 지경연 李基祚, 동지경연 李厚源, 시독관 洪處尹, 특진관 金光煜, 승지 趙壽益, 동지경연 林壇, 영경연 李敬興, 도승지 박서 등이었다. 6월 4일 조강에서 「舜典」을 읽은 후 영경연 李敬興, 도승지 박서 등은 하루 3회씩 하는 과중한 독서로 인한 효종의 건강을 염려하면서도 『史記』를 간접적으로 추천하기도 하였다. 이 날 효종은 하루에 세 차례 경연을 할 경우 주장에도 『大學衍義』를 강하도록 하였다.⁹⁾ 그러나 효종은 하루 3강을 자주한 것은 아니었다. 조강은 6월 4일과 10일 8월 9일 1년 3회 밖에 없었으며, 석강은 5월에 25일, 26일, 28일, 29일 4회와 6월은 3일, 4일, 8일 3회, 7월 16일 1회였다. 6월 5일 다시 직제를 개편하여 趙錫胤을 부제학으로 하여 시독관 趙復陽, 曹漢英 등과 독서를 실시하였으며, 6월 10일에는 석강이나 소대에만 읽었던

7) 『朝鮮王朝實錄』 孝宗. 1年 4月 4日(丁亥) 卷3. 冊35. p.421.

8) 『朝鮮王朝實錄』 孝宗. 1年 5月 25日(丁丑) 卷4. 冊35. p.430.

9) 『朝鮮王朝實錄』 孝宗. 1年 6月 4日(丙戌) 卷4. 冊35. p.431.

『大學衍義』를 주장에서도 읽고 토론하였다(6월 4일 주장에도 가끔 『大學衍義』를 강하라는 명이 있었음). 당시 『書傳』 읽고 있던 효종에게 우의정 趙翼은 6월 12일 상소를 올려 五經에만 치중하여 독서할 것이 아니라 성현의 길을 갈 수 있는 지름길은 四書밖에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그 책을 수시로 읽도록 권장했으나¹⁰⁾ 반응이 없었다. 7월 1일 『舜典』을 읽은 뒤 승정원에서는 효종의 건장이 좋지 않고 날씨까지 더우므로 독서 중단을 요청했으나 따르지 않았다.¹¹⁾ 초기의 열정적인 독서열로 7월 2일에 『舜典』을 완독하고 3일부터 주장에 『大禹謨』를 읽기 시작하여 8월 29일에 완독하였다. 실제 『大禹謨』를 읽은 기간을 보면, 7월 3, 18, 20, 21일과 8월 2, 10, 29일 등 6일간이었다. 7월의 석강은 16일 하루였으며, 주로 소대가 많았다. 소대일자를 보면 7월 21일, 27일, 28일, 29일이다. 이 중 7월 28일에 『大學衍義』를 읽고 옥당의 강관과 토론한 내용을 보면,

효종: 陳平이 呂氏들을 왕이 되도록 허락한 것은 무슨 이유인가?

시독관 曹漢英: 그것은 곧 일시적으로 뜻을 맞춰 주려는 의도에서였습니다.

효종: 나의 의견은 그렇지 않다. 太后가 일단 왕으로 만들려고 하는 이상 어찌 진평의 한마디 말 때문에 그만두겠는가. 진평의 의도는 태후가 만약 자기 말을 따르지 않고 자신을 제거한다면 그 뒤에 일을 치뤄 낼 수 없다고 여긴 것이다. 그래서 우선 그 뜻에 순응한 것이다.

조한영: 임금을 섬기는 도리는 한 결 같이 의로 섬길 따름이니, 성패는 따질 것이 못 됩니다.

효종: 그것은 바로 일시적인 權謀였으니, 후인들이 배워서 안 된다.

검도관 鄭斗卿: 漢高祖는 韓信을 몰랐는데, 蕭何는 그를 알았습니다. 그러나 소하의 지혜가 高帝보다 나아서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고제는 그를 만나보지 못했기 때문에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효종: 그렇다. 한 고조가 한신을 죽인 것은 대체로 惠帝가 어리고 약했기 때문에 후환이 있을까 염려하여 그랬던 것이다. 만약 혜제도 文帝처럼 英明했다면 필시 한신 등을 죽이지는 않았을 것이다.

정두경: 혜제가 趙王을 대우한 것은 또한 성덕에 해당하는 일이라고 할 만합니다.

효종: 혜제는 이와 같은 행실이 있었기 때문에 폐위되지 않은 것이다. 그렇지 않았다면 필시 폐위되었을 것이다.¹²⁾

10) 『朝鮮王朝實錄』 孝宗. 1年 6月 12日(甲午) 卷4. 冊35. p.433.

11) 『朝鮮王朝實錄』 孝宗. 1年 7月 1日(壬子) 卷4. 冊35. p.438.

이와 같이 효종은 초기에 상당히 열심히 독서하고 토론하였음을 알 수 있다. 8월에는 조강의 경우 9일 하루, 주강은 2, 10, 24, 26, 29일 5일간 실시하였으며, 석강 및 야대, 소대는 없었다. 실록에는 2일, 9일, 10일은 「大禹謨」, 24일, 26일은 「皐陶謨」를 읽다가 29일에는 다시 「大禹謨」를 읽은 것으로 나타났다. 8월 26일 「皐陶謨」를 읽고 趙復陽과 토론한 내용을 보면,

- 효종: 임금이 하늘을 대신하여 사물을 다스리면서 天職을 함께 수행할 자는 오직 가까운 신하들뿐인데, 말세에 와서는 사람을 얻기가 가장 어렵게 되었다. 지금 이 章을 읽어 보니 나도 모르게 얼굴이 붉어진다.
- 시독관 趙復陽: 三代 이상에서는 누구든 훌륭한 사람만 하면 임용했는데, 후세에 와서는 사람을 등용하는 길이 넓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암혈 아래에 또한 나오기를 어렵게 여기는 선비가 있는지 어찌 알겠습니까.
- 효종: 혹 기대하는 뜻이 너무 높아 세상에 나오는 것을 깨끗하게 여기지 않는 자가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어찌 그에게 반드시 그런 실상이 있다고 보장할 수 있겠는가.¹³⁾

효종이 책을 읽고 등용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면서 반성하는 기색이 보인다. 그러나 그는 독서에 대한 실천의지가 전혀 없었으며, 자신의 성격도 급하여 화를 잘 내고 즉흥적인 행동을 보이곤 하여 신하들이 꺼리는 편이었다.

9월에는 경연이 거의 없었다. 9월 2일 하루만 「益稷」편을 읽었다. 10월의 독서는 2, 10(야대), 17, 18, 19, 20일 등 6일간이었다. 이 중 주강은 5회, 야대는 1회였다. 10월 2일 다시 부제학 閔應亨, 대사헌 趙錫胤 등과 함께 「皐陶謨」를 읽었다. 10일 야대에서는 『大學衍義』가 아니라 시독관 趙復陽과 『心經』을 읽었다. 10월 13일에는 10일까지 독서를 같이 했던 부제학 閔應亨을 추고하고 시독관 趙復陽을 파직하라 하였다. 그 사유는 兪槩를 옹호했다는 것이다.¹⁴⁾ 유계는 선왕의 묘호를 정할 때(즉위년 5월 23일) '仁'자를 쓰는데 반대한 인물이라는 이유로 1년 4월 3일에 귀양보냈던 일이 있었는데 그가 죄가 없다고 두둔하자. 효종이 화를

12) 『朝鮮王朝實錄』 孝宗. 1年 7月 28日(己卯) 卷4. 冊35. p.448.

13) 『朝鮮王朝實錄』 孝宗. 1年 8月 26日(丁未) 卷4. 冊35. p.449.

14) 『朝鮮王朝實錄』 孝宗. 1年 10月 13日(癸巳) 卷5. 冊35. p.454.

내어(민응형은 평일 우대하는 신하지만) 그를 추고하고 조복양을 파직하라 한 것이다. 그 뒤 10월 17일 주장에서 「익직」의 독서를 마친 뒤에 특진관 洪茂績이 민응형과 조복양을 용서토록 건의하였으나 민응형만 파직을 면하고 조복양은 용서받지 못했다.¹⁵⁾ 항상 같이 독서한 경연관이 동료를 옹호했다는 이유로 파직까지 한 효종의 결정은 공적인 면보다 사적인 감정이 앞섰다는 생각이 든다.

11월의 독서는 5, 6, 9, 10, 11, 12, 17, 18, 20, 21, 25, 26일 등 12일간이었으며, 5일만 「益稷」을 읽고, 나머지 날은 시강관 洪處尹, 특진관 洪茂績 등과 「禹貢」을 읽었다. 윤11월에도 11월에 완독하지 못한 「禹貢」을 5, 6, 7, 8, 11일 5일간 주장에서 읽었다. 윤11월 8일에는 동지경연 李厚源, 시독관 洪命夏 등과 독서하였으며, 이 날 시강관 홍처윤을 배천군수로 임명하였다. 경연의 신하는 외직에 보임할 수 없으나 아버이를 위해 봉양한다 하여 효종이 특별히 임명한 것이다.¹⁶⁾ 윤11월 22일에는 경연에서 말한 내용이 외부에 누설되었다 하여 관련된 가주서 李溟翼, 사관 申最, 설서 趙龜錫 등을 파직하거나 영월군으로 유배시키는 등 엄벌에 처한 일도 있었다.¹⁷⁾

효종 2년(1651)에는 완독하지 못한 「禹貢」을 2월 25일까지 읽었다. <표 3>을 보면 1월의 독서는 8, 9, 10, 11(야대, 심경), 19, 20일 등 주장이 5일간이었으며, 야대가 1회였다. 2월은 8, 9, 10일 3일간 옥당의 강관들과 「禹貢」으로 소대를 실시하였으며, 주장은 20, 21, 22, 25, 26, 27일 등 6일간 주장이었다. 2월 26일은 「甘誓」¹⁸⁾를 읽었으며, 27일에는 「胤征」¹⁹⁾을 읽었다. 효종은 주로 낮에 독서를 많이 하였으나 그의 독서태도는 양호한 편은 아니었다. 효종 2년 1월 9일 장령 姜興載의 상소내용 중에 보면, 효종은 날마다 책을 읽고 토론할 때 주석에만 의존하기 때문에 문신들은 깨우쳐주는 일이 없으며, 임금은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을 받았다.²⁰⁾

15) 『朝鮮王朝實錄』 孝宗. 1年 10月 17日(丁酉) 卷5. 冊35. p.454.

16) 『朝鮮王朝實錄』 孝宗. 1年 윤11月 8日(丁亥) 卷5. 冊35. p.461.

17) 『朝鮮王朝實錄』 孝宗. 1年 윤11月 22日(辛丑) 卷5. 冊35. p.461.

18) 『朝鮮王朝實錄』 孝宗. 2年 2月 26日(癸酉) 卷6. 冊35. p.470.

19) 『朝鮮王朝實錄』 孝宗. 2年 2月 27日(甲戌) 卷6. 冊35. p.470.

20) 『朝鮮王朝實錄』 孝宗. 2年 1月 9日(丁亥) 卷6. 冊35. p.466.

이와 같이 강여재가 비판한 이유는 효종 1년 윤11월에 경연에서 나온 말을 누설한 죄로 사관 등을 처벌한데서 비롯된 것이다. 효종이 공정성과 너그러움이 부족한 데 책을 읽으면 어떤 효력이 있느냐는 의미로 보인다. 1월, 2월에 같이한 경연관은 侍讀官 金佐明, 檢討官 李天基, 동지경연사 趙錫胤, 知經筵 李基祚 등이었다. 3월부터 4월 10일까지는 경연에서의 독서는 없었다. 4월의 독서는 11, 12, 13, 18일 등 4일간이었다. 조강은 12, 13일, 주강은 11, 12, 13일, 석강은 『大學衍義』로 12, 13일 2일간 실시하였다. 즉 처음으로 4월 12, 13일 양일간 3강을 모두 실시한 것이다. 4월 11일 주강에서는 시독관 李海昌, 지경연 李基祚, 검토관 李正英 등과 『書傳』 「湯誓」를 읽고 내용과 시국에 대한 토론을 벌였으며,²¹⁾ 4월 12일 조강에서는 대사간 蔡裕後, 영경연 金裕, 동지경연 趙錫胤, 시독관 李海昌 등이 참석하여 「仲虺之誥」편을 읽었으며, 주강 역시 시독관 李海昌, 동지경연 趙錫胤 등과 「仲虺之誥」편을 읽고 토론하였다.²²⁾ 5월에는 독서일이 12, 13, 19, 20, 21일이었다. 12일은 주강 「湯誥」, 석강 『大學衍義』를, 13일에는 조강으로 「仲虺之誥」편, 19, 20, 21일 주강에서는 「伊訓」편을, 20일 소대에서는 『大學衍義』를 읽었다. 독서기간은 5일이었으며, 참여한 경연관은 영경연 李時白, 지경연 李厚源, 동지경연 閔應亨, 시독관 權堧, 검토관 金宗一 등이었다. 6월의 독서는 4, 5, 6, 9, 10, 18, 19일 등 총 7일간이었다. 10일 하루만 조강 실시하고, 석강은 5일과 10일 『大學衍義』를 읽었으며, 나머지는 모두 주강으로 책은 『書傳』 「太甲」편을 읽었다. 6월 5일에 『大學衍義』를 읽고 검토관 李天基, 시독관 蔡忠元 등과 토론한 내용을 보면,

효종: 唐玄宗은 李林甫를 모르고 德宗은 盧杞를 몰랐으며, 漢나라 哀帝와 平帝 때에는 王莽을 몰랐으니, 큰 奸人은 겉으로 진실한 것 같은 법이어서 사람을 알아가기란 참으로 쉽지 않다. 왕망이 겸손하고 공순할 때 스스로 제 소원대로 되었다고 여겼으니, 왕위를 찬탈한 뒤에 어찌 참모습을 수식하는 마음이 없었겠는가. 그런데도 능히 4만 명으로 하여금 관문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 어찌 그들을 모두 권유하여 그러하였겠는가. 그 계획이 매우 교활하였으나 종말을 고할 때는 어찌 그렇게도 어리석었는지 모르겠다.
검토관 李天基: 거저 명예로 천하를 빼앗아 제 소원이 이루어지자 본질이 드러

21) 『朝鮮王朝實錄』 孝宗. 2年 4月 11日(丁巳) 卷6. 冊35. p.476.

22) 『朝鮮王朝實錄』 孝宗. 2年 4月 12日(戊午) 卷6. 冊35. p.476.

- 났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효종: 왕망이 사람을 속이고 겸손한 체하다가 마침내 천하를 찬탈하였는데 그를 曹操와 비교하면 누가 더 나쁜가?
 이천기: 조조의 일은 왕망과 다릅니다. 심술은 대략 같으나 왕망처럼 극도로 흉악하고 간사하지는 않습니다.
 시독관 蔡忠元: 司馬溫公이 정통을 조조에게 돌린 것으로 보면 그 악이 왕망처럼 심하지는 않습니다.
 효종: 이는 사마온공의 틀린 견해이다. 만고의 간흉인 점은 왕망과 조조가 다름이 없으나 왕망은 그 재주가 조조보다 훨씬 못하다.²³⁾

위의 토론은 인간의 내면을 파악하고 평가하는 내용으로 상당히 자신의 생각을 주고받은 것 같다. 7월의 독서는 12, 13, 20, 21, 24, 25, 26일 등 총 7일이었다. 12, 13일 주장에 『書傳』 「威有一德」, 석강에 양일간 『大學衍義』를 읽었으며, 20일부터 26일까지 22일, 23일을 제외하고 『盤庚』편을 읽었다. 8월은 주장 3, 14, 19, 20, 25일, 야대는 26일 등 총 6일간이었다. 독서자료는 주장 『盤庚』편이었으며, 야대는 『心經』이었다. 8월 3일 주장에서 『書傳』 「盤庚」편을 읽은 후 侍讀官 李正英이 본인의 상관인 부제학 李之恒을 효종에게 강력하게 과직을 요청하였다. 당시 이정영은 술에 취해 경연에 들어와 상관인 이지항을 탄핵하였던 것이다. 술에 취한 상태라 강독을 하지 못하고 다음 당번이 대신 강독하였다. 술에 취한 이정영을 보고 효종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 효종: 이정영이 술에 취해서 강석에 나올 수 없으니, 下番에게 대신 강하게 하라. 한가히 있을 때에는 술을 마실 수도 있겠지만, 경연에 나오는 날 어떻게 감히 이처럼 진탕 취할 수 있겠는가.
 윤강: 이정영을 추고하소서.
 효종: 술 마신 과실로 경연의 신하를 추고하는 것은 너그러이 포용하는 도리가 아닌 듯하니, 그대로 두라.²⁴⁾

그러나 8월 7일 이후 이들에게 책임을 물어 파직하였다.²⁵⁾ 그 후 8월 14일 「반경」편을 읽은 후 동지경연 趙錫胤, 시강관 洪命夏, 특진관 許積 등은 이정영

23) 『朝鮮王朝實錄』 孝宗. 2年 6月 5日(庚戌) 卷6. 冊35. p.485.

24) 『朝鮮王朝實錄』 孝宗. 2年 8月 3日(戊申) 卷6. 冊35. p.502.

25) 『朝鮮王朝實錄』 孝宗. 2年 8月 7日(壬子) 卷6. 冊35. p.503.

의 건에 대해 사실 여부를 확실하게 조사해 줄 것을 건의하였다.²⁶⁾ 이 때문에 이정영은 8월 18, 19일 의금부에서 문초받도록 하였으나 효종의 배려로 다음 날 바로 석방되었다. 또한 그는 9월 6일 書寫官으로 승진되었으며, 3년 2월 24일 홍문관 부수찬에 임명되어 경연에 참석할 자격을 얻었다. 8월 25일 주장에서는 「반경」편을 읽고 시독관 洪命夏는 효종이 날마다 경연에서 독서하나 공부가 끊기는 경우가 있으므로 <夙興夜寐箴>이나 <聖學十圖>를 병풍으로 만들어 좌우에 두고 보도록 하였다.²⁷⁾ 9월 독서는 2, 6, 26, 27일 등 총 4일간이었다. 모두 주장이었으며, 독서범위는 『書傳』 「說命」편이었다. 「說命」편의 독서는 10월 1일까지 계속되었다. 10월 독서는 1, 2, 4, 8일까지 총 4일이었으며, 모두 주장을 실시하였다. 1일 「說命」, 2일 「高宗彤日」篇, 4일, 8일 동지경연사 趙錫胤(1606-1655) 등과 「西伯戡黎」篇을 같이 읽었다. 11월, 12월은 김자점의 역모사건으로 차분하게 독서할 여유가 없었는지 경연은 한 번도 실시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효종 2년(1651)의 경연은 조강, 주장, 석강, 야대를 실시하려고 노력했으나 거의 주장에 치우쳤음을 알 수 있다.

효종 3년(1652) 1월의 독서는 6, 7일 주장에서 『書傳』 「商書」의 마지막편인 「微子篇」을 읽었으며, 독서에 참여한 경연관은 검토폰 金始振, 시독관 金佐明, 특진관 鄭世規 등이었다. 18, 20, 21, 23, 24, 25, 28일 주장에는 「周書」의 「泰誓篇」을 특진관 李浣, 지경연 李厚源, 시독관 蔡忠元, 검토폰 金始振, 지경연 朴遜, 시독관 洪命夏 등과 같이 하였다. 2월의 독서는 2, 3, 7일 주장에서 「牧誓」를 지경연 朴遜, 특진관인 형조 참관 金汝鈺, 許積 등과 같이 하였다. 10일과 11일에는 주장에서 「武成篇」을 12일에는 13일, 14일은 소대에서 「洪範篇」, 29일 주장에서 「洪範篇」을 동지경연 沈之源, 특진관 閔應亨 등과 홍문관 강관들과 같이 하였다. 3월의 독서 범위는 3일 야대에서 홍문관 강관들과 『心經』을 읽고 술자리를 같이 하였다. 6, 7, 9, 10, 13일 주장에서는 「洪範篇」을 검토폰 李正英, 지경연 李厚源 등과 같이한 뒤 13일간 휴식기간을 가졌다. 26일 다시 주장과 석강을

26) 『朝鮮王朝實錄』 孝宗. 2年 8月 14日(己未) 卷7. 冊35. p.504.

27) 『朝鮮王朝實錄』 孝宗. 2年 8月 25日(庚午) 卷7. 冊35. p.507.

했는데, 주강에서는 『書傳』의 「旅獒篇」을 석강에서는 시독관 洪處大, 검토품 閔鼎重 등과 『大學衍義』를 읽었으며, 27, 28일에는 그 동안 거의 하지 않았던 3강(조강, 주강, 석강)을 실시하였다, 그 날 조강에서 「旅獒篇」, 주강과 석강에서 『大學衍義』를 읽었다. 주강에서는 『書傳』으로 정해졌으나 양일간은 『大學衍義』를 계속해서 읽었던 것이다. 4월엔 2일, 3일, 16일 주강에서 『書傳』 「金臚篇」을, 석강에서는 『大學衍義』를 읽었으며, 17일부터 19일 3일간은 「周書 大誥篇」을 읽었다. 당시 참여한 문신들은 검토품 金徽, 참찬관 閔應亨, 朴長遠, 閔光勳, 李弘淵, 지경연사 朴遵, 시독관 吳挺緯, 특진관 金汝鈺 등이었다. 5월의 독서는 11일 주강에서 4월에 중단한 「大誥篇」을 완독하고, 다음 날인 12일 주강 「微子之命篇」, 석강에 『大學衍義』를 읽었다. 이 날 조강을 하려고 했으나 특진관 윤강이 불참하여 심기가 불편한 관계로 앞으로 경연을 폐하고 召對만 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했다. 이에 대신들은 경연재개를 건의하여²⁸⁾ 수락 받은 뒤 13일 주강부터 다시 실시하였다. 이날 주강에서는 시독관 이태연과 검토품 홍처대 『書傳』 「微子之命篇」을 읽었다. 5월 14일부터 6월 2일까지는 「康誥篇」을 동지경연(대사간) 蔡裕後, 참찬관 金佐明, 閔應亨, 朴長遠, 시독관 閔鼎重, 특진관 許積, 시독관 민정중, 李泰淵,²⁹⁾ 尹鍊 등과 같이 하였다. 6월과 7월은 무더위 관계로 거의 경연이 없었다. 6월 2일 「康誥篇」, 7일 「酒誥篇」, 7월 15일 조강으로 「酒誥篇」의 독서밖에 없었다. 8월에는 11일 소대와 19일 석강 각 1회로 『대학연의』, 주강은 16, 18, 19, 20일로 시독관 鄭斗卿, 지경연 오준, 참찬관 洪命夏, 특진관 박서 등과 「酒誥篇」을 완독하였다. 9월에는 1, 2, 3, 19일 총 4회로 주강에만 「梓材篇」을 읽었으며, 10월에도 14, 17, 19, 22, 23, 26, 30일 주강만 실시하였다. 과목은 『書傳』의 「召誥篇」을 26일까지 읽고 30일에는 「洛誥篇」을 읽기 시작하였다. 경연관은 시독관 金徽, 이정기, 참찬관 李惕然, 洪命夏, 金弘郁, 지경연사 李厚源, 동지경연

28) 『朝鮮王朝實錄』 孝宗. 3年 5月 13日(癸未) 卷8. 册35. p.555.

29) 『朝鮮王朝實錄』 孝宗. 3年 5月 13日(癸未) 卷8. 册35. p.559.

“이태연은 6월 1일 조강에서 동궁의 나인을 선발하는데 三醫司의 자식들을 대궐 안으로 뽑아 들이는 것을 반대했다는 이유로 파직 당함, 당시 이태연은 궁궐에서 여염집 딸을 강제로 입궐시킨 것을 반대했는데, 효종은 한희유의 딸을 강제로 입궐시킨 것을 반대한 것으로 생각함.”

沈之源, 鄭維城 등이었다. 10월 30일 『洛誥篇』을 시작했으나 11월 1일 조강과, 2일 주장에서 다시 『召誥篇』을 완독하고, 시독관 李天基 등과 4, 5, 6, 8, 11, 18, 27일까지 『洛誥篇』을 읽었으며, 11월 30일에는 『多士篇』을 시작하였다. 그 날 읽기를 마치고 경연관들과 대화한 내용을 보면,

효종: 오늘 경연에 나오니 내 마음이 매우 두렵다. 成湯부터 帝乙까지 모두 덕을 밝히고 神을 힘써 공경하였는데, 이제 나는 그러지 못하였으니, 부끄럽지 않을 수 있겠는가.

참찬관 洪命夏: 임금의 모르면 그만이겠으나, 알면 힘쓰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효종: 나라를 망치는 것은 한 가지 길뿐이 아니다마는, 崇禎皇帝로 말하면 안에서는 풍악이나 여색을 즐기지 않았고 밖에서는 사냥을 즐기는 일이 없었는데도 오히려 전복됨을 면하지 못했으니, 대개 밝지 못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閹老 馮璉(明)은 九王에게 사랑받고 맨 먼저 머리를 깎자는 논의를 냈으니, 통탄스러워 견딜 수 없구나. 다른 나라의 흥망은 말할 것도 없이 지금 우리나라의 망할 듯한 위태로운 형상은 마침내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니, 내 마음이 타는 듯하다.

시독관 李天基: 옛사람이 이른바 至籙만이 사직을 근심한다 한 것이 바로 오늘 날을 두고 말한 것이니, 모두 조정 신하들의 죄입니다.

홍명하: 송정 때에 안에는 훌륭한 정승이 없고 밖에는 名將이 없으며 異敎를 받들고 宦寺를 총애하여 일을 맡겼으니, 망한 것이 또한 마땅하지 않겠습니까.³⁰⁾

자신이 덕으로 정치하지 못함을 부끄럽게 여기는 내용이다.

12월에는 1일 하루만 『多士篇』을 읽고, 14, 15 양일간 시독관 沈之漢, 참찬관 李時楷 등과 『大學衍義』의 내용으로 토론하는 것으로 마무리하였다.

효종 4년(1653) 1월에는 독서를 하루도 하지 않았다. 2월에는 2, 3, 4, 5, 6, 18, 20, 21, 22, 23, 25일 등 총 11일간 주강을 실시하였다. 독서범위는 『書傳』, 『多士篇』, 『無逸篇』, 『君奭篇』이었다. 경연관은 특진관 이시방, 지경연 沈之源, 李厚源, 시독관 金始振, 동지경연 蔡裕後, 尹絳, 검토회관 趙復陽 등이었다. 2월 25일 주강을 마친 뒤 지경연 沈之源, 검토회관 趙復陽 등은 『辟瘟俗方』 중에 의약내용을 시골사람들이 알기 쉽도록 발췌하고 번역한 뒤 간행하여 각 고을에 나누어 줄 것을 건의하였다.³¹⁾ 3월의 독서는 3, 4, 6, 7, 17, 18, 19, 20, 25, 26일 등 총 10일간 주장에서

30) 『朝鮮王朝實錄』 孝宗. 3年 11月 30日(戊戌) 卷9. 冊35. p.592.

31) 『朝鮮王朝實錄』 孝宗. 4年 2月 25日(壬戌) 卷10. 冊35. p.618.

「君爽篇」, 「蔡仲之命」, 「多士篇」, 「多方」, 「立政篇」을 읽었으며, 17일 석강에서 는 대학연의를 읽었다. 경연관은 지경연 南銑, 李厚源, 沈之源, 시독관 金始振, 沈之漢, 참찬관 李時楷, 특진관 韓必遠, 李一相 등이었다. 3월 17일엔 석강에서 『大學衍義』의 내용으로 시독관 沈之漢과 명나라의 李林甫에 대해 토론한 바 있다.³²⁾ 4월에는 8, 10일 총 2일간 「立政篇」을 읽었다. 5월, 6월, 7월 3개월간 경연을 열지 않았다. 6월 22일에 尹鏞을 응교로, 李泰淵을 수찬으로, 朴遜을 지경연으로 삼았으며, 7월 13일에 南銑을 지경연(형조판서)으로, 金南重을 동지경연으로, 愼天翊을 부제학으로 삼아 관직을 재정비하고 경연을 준비하였다. 윤7월 12일 조강에서 「立政篇」을 시작으로 집의 尹鏞, 사간 權堧, 영경연 李時白, 시독관 李端相等과 같이 하였다. 「立政篇」은 18일 조강, 19일 주장에서 완독하였다. 20일부터 「周官篇」 독서를 시작하여, 21, 22, 23일에 완독하고 25일엔 鄭維城을 지경연으로, 閔應亨을 동지경연으로 제수하고 「君陳篇」을 읽었으며, 같은 날 석강에서는 『대학연의』를 읽었다. 8월에는 1일, 7일 주장에서 「君陳篇」을, 10, 24, 25, 26일에는 「顧命篇」을 동지경연 蔡裕後, 趙錫胤, 시독관 李皙, 李泰淵, 참찬관 沈之漢, 검토회관 李慶徽 등과 함께 하였다. 9월에는 趙壽益을 부제학으로 제수하고 1일에 주장에서 참찬관 曹漢英과 顧命篇을 완독하였다. 2일부터 3일까지 지경연 沈之源, 특진관 李時昉 등과 「康王之誥篇」을, 16, 25, 26일에는 「畢命篇」을 읽었다. 10월에는 1, 2, 4, 5, 10, 17, 18, 20일까지 8일간 주장에서 시독관 蔡忠元, 시강관 李皙, 지경연 沈之源, 동지경연 李厚源, 참찬관 安獻徽 등과 서전 「君牙篇」, 「罔命篇」, 「呂刑篇」을 읽었다. 동월 17일에 시강관 李皙과 「呂刑篇」의 내용에서 형벌의 남형에 대해 토론하였으며,³³⁾ 또한 20일에는 효종이 「呂刑篇」을 읽은 뒤 판의금 元斗杓와 형조 판서 李厚源에게

“이 편은 다 형벌을 삼가라는 말이니, 위에 있는 자만 유념해야 할 뿐이 아니다. 경들은 지금 형벌을 맡은 관원이니 또한 이 뜻을 공경히 따르지 않으면 안 된다.”³⁴⁾

32) 『朝鮮王朝實錄』 孝宗. 4年 3月 17日(癸未) 卷10. 冊35. p.623.

33) 『朝鮮王朝實錄』 孝宗. 4年 10月 17日(己卯) 卷11. 冊35. p.655.

34) 『朝鮮王朝實錄』 孝宗. 4年 10月 20日(壬午) 卷11. 冊35. p.656.

하고 11월에 5일 하루밖에 『呂刑篇』을 읽지 않고 그 해 독서를 마무리하였다.

효종 5년(1654) 1월에는 7일 조강에서 서전 『文侯之命篇』, 8일 주장 『費誓』, 9일 주장 『秦誓』를 끝으로 서전 10권을 모두 완독하였다. 1월 23일 주장부터 『詩傳』을 선택하여 『서문』을 읽기 시작하였다. 독서가 끝난 뒤 효종은 참찬관 沈膺에게 經文을 전공한 문신들에게 돌아가면서 경연에 입시하여 文義를 강론토록 하였다.³⁵⁾ 2월의 독서는 주장과 석강을 실시하였는데 주장은 8, 9일 시독관은 金壽恒 등과 關睢章, 10일 葛覃章, 11일 卷耳章과 樛木章, 12일 螽斯章, 桃夭章, 兔置章, 14일 芣苢章과 漢廣章, 18일 汝墳章과 麟之趾章, 19일 采芣章, 22일 草蟲章과 采蘋章, 24일 甘棠章, 25일 行露章과 羔羊章, 26일에는 殷其雷章과 標有梅章, 27일에는 江有汜, 野有死麕, 何彼穠矣章 등을 읽었다. 2월의 석강은 25, 26, 27일 연 3일간 실시하였는데 과목은 『大學衍義』였다. 효종이 25일 『大學衍義』 내용 중에 盧杞의 일에 대해 경연관에게 일렀다.

“노기가 간사하고 아침하여 충성스러운 것 같아 보이자 德宗이 현혹되어 마침내 나라가 전복되고야 말았으니, 경계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³⁶⁾

그리고 26일 석강에서는 盧杞가 顏真卿을 죽이고 李揆을 축출한 일에 대한 내용에서 자신의 생각을 경연관에게 전하기도 했다.³⁷⁾ 4월의 독서는 조강을 2일간 실시하였다. 조강은 집의 李晩榮, 특진관 洪命夏, 영의정 정태화 등과 1일 騶虞章, 9일 柏舟章을, 주장은 9일 綠衣章, 10일 日月章, 12일 擊鼓章과 凱風章, 13일 雄雉章과 匏有苦葉章, 16일 谷風章, 17일 式微章과 旄丘章, 18일에는 洪命夏를 부제학으로 삼아 簡兮章과 泉水章을 읽었으며, 19일은 시독관 李延年과 『北門章』과 『北風章』을 읽고 대화한 내용을 보면,

시독관 李延年: 북풍의 시는 어진 사람이 위태로운 나라에 살다가 기미를 보고 떠나가는 뜻이 있는 것입니다. 임금이 되어서 어진 사람으로 하여금 이와

35) 『朝鮮王朝實錄』 孝宗. 5年 1月 23日(甲寅) 卷12. 冊35. p.661.

36) 『朝鮮王朝實錄』 孝宗. 5年 3月 25日(乙卯) 卷12. 冊35. p.667.

37) 『朝鮮王朝實錄』 孝宗. 5年 3月 26日(甲寅) 卷12. 冊35. p.667.

같이 한다면, 어찌 위태롭지 않겠습니까.

효종: 임금으로서 말한다면 선비들이 조정에 벼슬하기를 원하지 않는 것이 참으로 부끄럽 직하거니와, 신하로서 말한다면 위태로운데도 붙잡아 주지 않고 다만 버리고 떠나가는 것만 생각하는 사람도 또한 어찌 그 도리를 다하는 것이겠는가.³⁸⁾

석강은 9일, 13일에 실시하였다. 책은 『대학연의』로 9일 시독관 李延年, 仇士良 등과 다음과 같이 토론하였다.

시독관 李延年, 仇士良: 小人은 반드시 지모가 있는 뒤에야 그 간사함을 부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의 술책이 간교하다고 이를 수 있으나 그 자신도 요행히 죽음을 모면하고 국가는 따라서 망하게 되었으니, 이로써 말한다면 그 계책이 참으로 어리석은 것입니다.

효종: 사랑의 이 말은 충분히 죽임을 당할 만하다.³⁹⁾

22일 주강에서는 「靜女章」, 「新臺章」, 「二子乘舟章」, 24일 「栢舟章」과 「牆有茨章」, 25일 「君子偕老章」, 28일 「桑中章」과 「鶉之奔奔章」, 29일 「定之方中章」을 참찬관 南老星과 함께하였다. 강론 후 참찬관 남노성은 효종이 역사책 『치평요람』을 보고 싶다는 의견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참찬관 南老星: 지난날 『치평요람』을 찾아서 올리라는 하교가 있었는데, 신이 이 책을 보건대 紀事가 빈잡하여 예람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만일 史記를 보고 싶으시다면 『資治綱目』만한 것이 없습니다. 『강목』은 바로 사기의 조종으로서 가장 열람하기에 적합한데, 하필이면 쓸데없는 책에 정신을 허비하려 하십니까.

효종: 『치평요람』은 바로 조종조에서 儒臣에게 명하여 편성한 책이다. 이리므로 그것을 한번 보고 싶었을 뿐이다.⁴⁰⁾

그 뒤 『치평요람』을 읽었는지는 확실치 않다. 30일에는 동지경연 鄭維城, 참찬관 洪命夏 등과 「蝮螫章」, 「相鼠章」, 「干旄章」을 읽었다.

38) 『朝鮮王朝實錄』 孝宗. 5年 4月 19日(戊寅) 卷12. 冊35. p.669.

39) 『朝鮮王朝實錄』 孝宗. 5年 4月 9日(戊辰) 卷12. 冊35. p.668.

40) 『朝鮮王朝實錄』 孝宗. 5年 4月 29日(戊子) 卷12. 冊35. p.669.

5월에는 조강, 주장, 석강 등 3강을 실시하였다. 1일 주장에서는 지경연 沈之源 등과 載馳章을 읽고 효충은 심지원에게 다음과 같이 경청태도에 대한 비판을 받았다.

지경연 沈之源: 성상께서 날마다 경연을 열어 經義를 강구하시니 학문에 부지런히 애쓰는 뜻이 훌륭하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臣僚를 나오게 하여 집견하는 것은 앞으로 그들의 말을 채용하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을 비우고 받아들이는 실상을 보지 못하는 까닭에 조정 위에서直言하는 풍조를 보지 못하겠습니다.

효충: 경에게 품은 뜻이 있는가?

지원: 지난번 말[言] 때문에 죄를 얻은 사람에게 모두 널리 탕감하는 恩典을 베풀면 누가 전하의 앞에서 충성하기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상이 들어주지 않았다.)⁴¹⁾

1일 석강에서는 『大學衍義』를 읽고 동지경연 李時楷, 특진관 李時昉 등과 新豐府院君 張維가 완성하지 못한 『癸亥反正錄』을 완성하자는 의견 제시하기도 했다. 2일 조강에서는 「淇澳章」, 3일 주장 「考槃章」과 「碩人章」, 4일 주장 「氓章」, 석강 『大學衍義』, 11일 조강 「竹筴」, 「芄蘭」, 「河廣」 등의 章을 읽었다. 11일 석강에서 『大學衍義』를 읽은 후 지경연 鄭維城과 함경도 재난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12일 주장에서는 「伯兮」, 「有狐」, 「木瓜」 등의 章을 지경연 吳竣, 승지 洪處亮 등과 전염병으로 전옥서의 죄인 중 죄질이 가벼운 자를 대상으로 석방여부를 논의하였다. 21일 조강 「黍離」, 「君子于役」 등을 영경연 金楳, 승지 洪處亮과 같이 하였다. 25일 주장은 「君子陽陽」과 「揚之水」, 26일 주장은 「中谷有推」, 「兔爰」 章을 읽고 검토했던 洪宇遠, 이조 참의 愼天翊 등과 호남의 전염병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였다. 이상으로 5월에는 총 9일간 독서를 하였으며, 조강도 3회나 하였다. 6월의 독서범위는 1일 주장 「葛藟」, 「采葛」, 「大車」, 「丘中有麻」 章 등 4편, 10일 소대에는 참찬관 李行進, 검토했던 洪宇遠 등과 『大學衍義』를 읽었다. 7월은 휴강하고 8월 10일 愼天翊을 부제학으로, 南鈺을 지경연으로, 金益熙를 동지경연, 安後稷을 정언, 趙龜錫을 교리로 임명한 뒤 주장에서 「將仲子章」을 읽었다. 그 후 18일 동안 쉬었다가 28일 주장에서 「叔于田」, 29일 특진관 洪命夏 등과 「清人章」

41) 『朝鮮王朝實錄』 孝宗. 5年 5月 1日(庚寅) 卷12. 冊35. p.670.

과 「羔裘章」을 읽었다. 따라서 8월에는 10, 28, 29일 총 3일 독서하였다. 9월에도 주강으로 4일 「遼大路」, 「女曰鷄鳴章」과 28일 「有女同車」, 「山有扶蘇」, 「蓀兮」章, 29일 「狡童」, 「蹇裳」, 「丰」, 「東門之蟬」장 등 3일간 동지경연 金益熙 등과 함께하였다.

10월엔 4일간 주강을 실시하였다. 10일 「風雨」, 「子衿」, 「揚之水」, 14일 「出其東門」, 「野有蔓草」, 「溱洧」, 20일 「鷄鳴章」, 21일 「東方之日」, 「東方未明」 등을 읽었다. 11월에도 주강만 4일간 실시하였다. 1일 「盧舍」, 「敝笱」, 「載驅」, 2일 「猗嗟章」, 6일 「園有桃」, 「陟岵」, 「十畝之間」, 9일 「伐檀」, 「碩鼠」 등을 읽었으며, 12월은 겨울철이라 휴강하였다.

효종 6년 1월엔 조강 1회, 주강 6회를 실시하였다. 12일 조강에서는 「蟋蟀章」, 주강은 17일 「揚之水章」, 20일 「椒聊章」, 「綢繆章」, 「杕杜章」, 24일 「羔裘章」, 「無衣章」, 26일 「杕杜章」, 28일 「車隣章」, 「駟驥章」, 29일 「小戎章」을 읽었다. 2월에는 5일간 주강을 열었는데, 5일 「黃鳥章」, 6일 「晨風章」, 9일 「渭陽章」, 11일 「東門之枌章」, 14일 「衡門章」, 「防有鵲巢章」 등을 읽었으며, 3월은 3강 모두 없었다. 4월은 독서하기 좋은 계절이어서 효종도 적극적인 면을 보인 것 같다. 7일간 석강 2회 주강 7일을 실시하였으며, 시의 내용으로 토론까지 실시하였다. 3일 주강에서는 「月出章」, 5일 지경연 鄭維城, 특진관 李時楷 등과 「隰有萋楚章」, 「蜉蝣章」를 읽은 후 군법을 어긴 정시영의 효시를 만류하자, 효종은 소리를 질러 말하길, “그 사정에 어두운 말을 내지 말라. 우리나라는 군율이 엄하지 않아 일찍이 못사람을 경계한 일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다 이처럼 놀라고 괴이하게 여기는 것이다.”⁴²⁾ 이와 같은 일로 효종은 마음이 안정되지 않았는지 18일간이나 독서에 관심을 두지 않았다. 동월 23일엔 주강과 석강을 병행하였다. 주강에서는 「鳩鳩章」, 석강에서는 대학연의를 24일 주강에서는 「下泉章」을 읽고 참찬관 김익희, 이일상 등과 시에 대한 느낌을 얘기하였다.

參贊官 金益熙: 오늘날에 이 시를 보니, 참으로 느낌이 슬프습니다. 春秋 때에는 五霸가 왕을 높였으므로 오히려 宗周를 생각하는 뜻이 있었으나, 오늘날

42) 『朝鮮王朝實錄』 孝宗. 6年 4月 5日(己未) 卷14. 冊36. p.9.

은 이와 크게 다르니, 어찌 매우 슬픈 것이 아니겠습니까.

동지경연 李一相(글 뜻을 강론하다가 李樛의 일을 언급하자)

효종: 이량이 어떤 사람이나?

동지경연 李一相: 明宗 때의 권세있는 간신입니다.

김익희: 이량은 권세를 탐하고 멋대로 방자하게 군것에 지나지 않고 종사를 위태롭게 하거나 사람을 살해한 일은 없습니다.

효종: 이량의 악은 尹元衡에 비하여 누가 심한가?

김익희: 윤원형은 士類를 배어 없었으니 죄가 종사에 관계되나, 이량은 간사하고 외람한 더러운 사람에 지나지 않습니다

효종: 예전부터 소인이 뜻을 얻으면 권세를 마음대로 하고 스스로 방자한 데에 지나지 않았으나, 우리나라의 간흉은 반드시 사람을 베고야 마니, 참으로 통탄스럽다.

김익희: 기묘년의 諸賢은 밝은 시절을 만나 지극한 정치를 바랐으나 일을 할 때에 차별하지 않아서 마침내 권세있는 간신이 미워하고 큰 화를 빚게 만들었으니, 통탄스러워 견딜 수 있겠습니까.

효종: 東京의 黨錮는 화가 또한 비참하였다. 그러나 奸雄인 曹掾가 끝내 그 자신 때에 즉위하지 않고 미루어 그 아들에게 주어 篡逆의 이름이 자신에게 돌아가지 않고 그 아들에게 돌아가게 하였다. 대개 동경 제현의 節義와 언론이 사람들의耳目에 있으므로 끝내 감히 스스로 방자하지 못한 것이다.⁴³⁾

동 24일 석강에서는 참찬관 김익희와 대학연의, 25일과 27일, 28일 주강에서는 『七月章』의 내용으로 경연관들과 토론하였다.

효종: 司馬遷이 ‘漢武帝가 六經을 드러내어 밝히기는 하였으나 文帝가 黃老를 숭상한 때에 미치지 못한다.’ 하였는데, 이 말이 어떠한가?

동지경연 蔡裕後: 이는 사마천이 해야 할 말이 아닙니다. 신하의 의리를 매우 알았으니, 신은 사마천을 그르게 여깁니다.

효종: 漢高祖가 太公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을 때에 ‘중(仲)과 비교하여 공업이 누가 많으나.’는 말을 하였고, 唐太宗이 上皇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을 때에도 胡越一家를 자랑하였으니, 두 임금의 뽐낸 뜻은 서로 같다.

특진관 李時楷: 한 고조·당 태종·명 태조 세 임금의 창업은 후세에서 아무도 미치지 못합니다.

효종: 당 태종이 曹掾를 제사한 글에 ‘한 장수로서의 지혜는 넉넉하나 천자로서의 재능은 모자란다.’ 하였는데, 후세 사람이 평하여 바로 자기를 형용한 것이라 한 것은 명언이라 하겠다. 孫策도 영웅이다. 그가 죽어갈 때에 그 아우에게 말한 것은 명석하다 하겠다.

이시해: 姚襄도 손책에 견줄 만한데 학문은 더 넉넉합니다. 그때 夷狄에는 영웅

43) 『朝鮮王朝實錄』 孝宗. 6年 4月 24日(戊寅) 卷14. 冊36. p.11.

이 많았거니와, 慕容氏로 말하면 날날이 다 호걸입니다.

효종: 石勒 같은 자도 어찌 호걸이 아니겠는가. 그가 말하기를 ‘中原에서 함께 달리면 누구의 손에 사슴이 죽을는지 모른다.’ 하였는데, 영웅의 말은 대개 이와 같다.

채유후: 劉曜는 눈에 赤光이 있고 뛰어난 지략이 짝이 없었는데 마침내 석능에게 잡혔으니, 알 수 없습니다.

효종: 일하는 것이 어리석으니, 어찌 패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44)

5월에는 석강 1회 주강 8회를 실시하였다. 1일 주강 『七月章』, 석강에서 『大學衍義』를 마치고 효종이 다음으로 읽어야 할 책 『綱目』에 대해 채유후와 논의하였다.

동지경연 蔡裕後: 어떤 사람은 먼저 『綱目』을 강독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효종: 『綱目』은 치란과 흥망의 자취를 볼 수 있을 뿐이다. 시비가 명백하고 논의가 통쾌하여 마음을 확 틔우고 지식을 넓히는 것으로 말하면 이 서적 만한 것이 없다.45)

그러나 공식적으로 『綱目』은 읽혀지지 못하고 계속해서 『詩經』 독서를 하였다. 2일 시독관 尹鍊 등과 『鷓鴣章』의 ‘迨天之未陰雨’라는 내용으로 토론하였으며, 14일에도 『東山章』을 읽으며 김익희와 소통하였다.46) 15일 『破斧章』, 『伐柯章』, 『九罭章』, 16일 『狼跋章』, 27일 『鹿鳴章』, 28일 『四牡章』, 29일 『皇皇者華章』을 읽었으며, 6월에는 1일 하루만 주강에서 『常棣章』을 읽고, 7월까지 휴강하였다. 8월엔 10일까지 주강만 5회 실시하였다. 1일 영경연 沈之源, 대사헌 홍명하, 시독관 이단상 등과 『伐木章』을 읽고 술과 봉우, 봉당에 대해 열린 토론을 실시하였다.47) 다음 날 2일 시독관 이단상, 예조 판서 吳竣 등과 『天保章』, 3일 『采薇章』, 9일 『出車章』을 읽고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토론하였으며,

효종: 주석 가운데 ‘명령을 받는 날 군사들이 눈물을 흘렸다.’ 한 것은, 죽음을 두려워해서가 아니라 바로 임금의 은혜에 감격하여 반드시 목숨을 바치고자 해서 그런 것이다.

44) 『朝鮮王朝實錄』 孝宗. 6年 4月 27日(辛巳) 卷14. 冊36. p.12.

45) 『朝鮮王朝實錄』 孝宗. 6年 5月 1日(甲申) 卷14. 冊36. p.12.

46) 『朝鮮王朝實錄』 孝宗. 6年 5月 14日(丁酉) 卷14. 冊36. p.14.

47) 『朝鮮王朝實錄』 孝宗. 6年 8月 1日(壬子) 卷15. 冊36. p.27.

특진관 허적: 사졸들이 이와 같은 연후에야 마야흐로 쓸 수 있는데, 후세에는 장수라 하더라도 죽기를 원하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공을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효종: 田單이 即墨에 있었을 때는 齊나라를 회복하는 공을 이룩하였는데, 황금 띠를 두른 뒤에는 오랑캐를 함락시키지 못하였으니, 이는 죽기를 원하는 마음이 앞뒤가 같지 않았기 때문이다.

시독관 이단상: 병가의 승패는 군사의 수가 많고 적은 데 달려 있지 않고 오직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겠다는 그들의 마음을 얻는 데 달려 있을 뿐인데 이것은 또한 장수의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임진년에 趙憲이 의병을 일으켜 왜적을 토벌하였는데, 군대가 패배하여 죽게 된 상황에 이르러 칠백 명의 의사가 조현의 시체 곁에서 함께 전사하였습니다. 만일 義氣로써 감동 결속시킨 것이 아니라면 어떻게 목숨을 버리고 의리를 취하기를 이처럼 장렬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⁴⁸⁾

8월 10일 「**杻杜章**」을 읽은 뒤 10월 15일까지 휴강하였다. 10월에도 주장만 6일 간 실시하였다. 16일 「**魚麗章**」, 17일 「**南有嘉魚**」 「**南山有臺**」, 20일 「**蓼蕭**」 「**湛露**」, 21일 「**彤弓**」 「**菁菁者莪**」, 26일 「**六月章**」으로 참관관 金益熙와 내용에 대해 토의 하였으며, 27일까지 「**六月章**」을 읽었다. 11월엔 2회 주강을 실시하였다. 1일 「**棗莩章**」을 읽고 휴강에 들어갔다. 동월 19일에 홍문관에서 현재 읽고 있는 책에 대해 다음과 같이 완독할 기한을 정하기도 하였다.

홍문관이 아뢰기를, “삼가 보건대 政院이 날씨가 몹시 차갑다는 이유로 經筵을 頗稟하였습니다. 그러나 경연을 여는 고사에 小寒 이전에는 탈푼한 전례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강하고 계신 책의 남은 분량이 많지 않고 앞으로 소한까지는 날씨가 멀었으니, 조금 따뜻한 날을 가려 이 책의 강을 끝마쳐서 책 끝의 나머지 강할 부분이 신년까지 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⁴⁹⁾

11월 24일 「**車攻章**」의 내용에 대해 시독관 蔡忠元과 같이 하였으며,⁵⁰⁾ 12월엔 주장만 3회 실시하였다. 2일 「**車攻章**」, 3일 「**鴻雁**」 「**庭燎**」 등의 장, 4일 「**沔水**」 「**鶴鳴**」장 등을 읽고 휴강하였다.

48) 『朝鮮王朝實錄』 孝宗. 6年 8月 9日(庚申) 卷15. 冊36. p.28.

49) 『朝鮮王朝實錄』 孝宗. 6年 11月 19日(己亥) 卷15. 冊36. p.35.

50) 『朝鮮王朝實錄』 孝宗. 6年 11月 24日(甲辰) 卷15. 冊36. p.35.

효종 7년(1656)에도 『시경』을 계속해서 읽었다. 1월 5일엔 金益熙를 대사헌 겸 대제학 동지경연으로, 尹絳을 동지경연으로, 許積을 지경연으로 임명하여 동월 28일과 29일 양일간 주강을 실시하였다. 28일에는 시독관 민정중과 동지경연 金益熙 등과 「祈父」, 「白駒」, 29일에는 지경연 李厚源과 「黃鳥」, 「我行其野」 등의 장을 읽었다. 2월에는 3일 주강 「斯干章」, 5일 조강 「斯干章」 강독뿐이었다. 3일 주강은 참찬관 蔡忠元과 「斯干章」을 다음과 같이 강론하였다.

참찬관 蔡忠元: 慮王은 포학하여 백성에게 쫓겨나고 宣王이 中興하여 궁실을 고쳐지었으니, 이것이 이 시가 지어진 까닭입니다.

효종: 宣王이 겨우 증흥시킬 수 있었는데 또 幽王을 낳았으니, 하늘의 뜻을 알 수가 없다.

충원: 실로 氣數에 관계된 것입니다.

효종: (웃으며) 기수의 說은 군자가 말하지 않는 것이다.⁵¹⁾

이 날 이후 한 동안 경연이 중단되었다. 중단된 사유는 2월 19일 홍문관(교리 민정중, 부교리 서필원, 수찬 이석, 부수찬 이단상·이경휘)에서 경연을 열지 못하더라도 때때로 강관을 불러 독서하도록 권장하는 말에 효종은 그 동안 감기로 인해 독서하지 못했으니 유념하겠다는 답변을 보인데서 알 수 있다.⁵²⁾ 3월에는 주강 4회(4, 5, 8, 26일), 소대 2회(18, 19일)를 실시하였다. 4일에는 「無羊」, 5일, 8일, 26일은 「節南山」장을 지경연 李厚源, 동지경연 李時楷 등과 같이하고, 소대에서는 검토회관 洪葦 등의 강관을 불러 『대학연의』를 강독하였다. 4월에는 휴강이었으며, 5월에도 26일 하루만 주강에서 동지경연 李時楷, 특진관 李時昉 등과 「正月章」을 읽었으며, 윤5월에도 19일과 22일 주강에서 시강관 金壽恒과 「正月章」을 읽었다. 6월 역시 정상적인 독서가 없고, 4일과 17일 강관을 불러 『대학연의』를 읽은 것이 전부였다. 7월엔 주강만 5회 실시하였다. 19일부터 21일까지 「十月之交章」, 22일, 28일 「雨無正章」을 강독하였다. 강독을 마치고 지경연 李厚源의 건의로 昭惠王后의 『內訓』과 金正國이 편집한 『警民篇』을 간행하게

51) 『朝鮮王朝實錄』 孝宗. 7年 2月 3日(壬子) 卷16. 冊36. p.42.

52) 『朝鮮王朝實錄』 孝宗. 7年 2月 19日(戊辰) 卷16. 冊36. p.43.

하였다. 8월에도 주장 만 3회 실시하였다. 5일 「雨無正章」과 「小旻章」을 읽고 동지경연 채유후와 담론한 내용을 보면,

효종: ‘뜰에 가득 차도록 너도 나도 말하니, 이 때문에 이루지 못한다.’고 하였는데, 바로 오늘 날을 두고 한 말이다.

동지경연 蔡裕後: 당나라가 淮와 蔡를 정벌할 때 오직 襄度의 말만 썼습니다.

효종: 위임하여 성과를 이루도록 책임지우기는 옛날부터 매우 어려웠다. 우리 조정의 일을 가지고 말한다면 金宗瑞가 육진을 개척할 때 세종대왕이 비난하는 글을 보이면서 위임하였으니, 이와 같이 한 연후라야 비로소 큰일을 할 수 있는 것이다.⁵³⁾

시를 읽으며, 당시 상황과 과거를 회상하는 광경이다. 8월 7일 주장에서 「小宛章」의 내용으로 음주에 대한 얘기가 있었다.

지경연 洪命夏: 이 소완장은 술을 경계하라는 뜻을 말하였는데, 크게는 국가를 망하게 하고 작게는 자신을 망치는 것이 대부분 술에서 연유하니, 이것을 어찌 조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지난 임진년에 성상께서 특별히 술을 경계하라고 내리신 하교가 몹시도 간절했는데 요즈음 대궐에 입직하는 관원 중에 술에 취한 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효종: 누구냐?

시독관 李延年: 신이 본디 술을 잘 못 마시는데 지난번에 친척이 권하여서 매우 취한 상태에서 입직하여 僚席에서 예의를 잃었으니, 황공함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하니, 상이 잠자코 있었다.⁵⁴⁾

글의 내용 중 술을 경계하라는 내용을 얘기하면서 홍명하는 왕의 면전에 술취한 상태에서 입직한 경연관이 있었다는 것을 보고하고 그 자리에 참석한 시독관은 자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문제는 자백한 시독관에 대해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는 것이다. 8월 30일에는 鄭維城을 지경연으로 임명하고, 「桑扈章」을 함께하였다. 9월에도 거의 독서가 없었다. 16일 「小弁章」을 시독관 李慶億과 같이 하고 18일부터 병이 심하고 어지럽다 하여 독서가 중단되었다. 다시 28일 「小弁

53) 『朝鮮王朝實錄』 孝宗. 7年 8月 5日(庚辰) 卷17. 冊36. p.62.

54) 『朝鮮王朝實錄』 孝宗. 7年 8月 7日(壬午) 卷17. 冊36. p.62.

章』을, 29일 「巧言章』을 읽었다. 10월엔 주장 2회로 2일 「巧言章』을, 4일 「何人斯章』을 지경연 鄭維城 등과 같이하였다. 2일에는 정유성이 효종 앞에서 장구해석에만 치중한다는 비평을 하기도 하였다. 11월, 12월에도 정기적인 독서가 없었다. 다만 11월 10일 단 하루 강관을 불러 『대학연의』를 강독하였다. 그 동안 거의 독서를 하지 못한 효종은 다음 해인 효종 8년(1657) 1월 18일에는 참찬관 이일상, 동지경연洪命夏 등과 「何人斯章』을, 20일에는 시독관 정만화, 동지경연 채유후 등과 「巷伯章』을 읽고 그 내용에 대해서 토론하였다. 그 내용을 보면,

시독관 정만화: 공자가 말하기를 ‘어진 사람을 좋아하는는 마치 緇衣처럼 하고, 악을 미워하기는 마치 巷伯처럼 하라.’ 하셨으니, 이것은 임금된 사람이 마땅히 체득해야 할 곳입니다.

동지경연 채유후: 唐太宗의 英明함으로도 오히려 魏徵을 의심하였으니, 경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효종: 참소하는 말은 반드시 편벽된 곳을 틈타서 들어오는 것이다. 태종은 항상 위장이 명예를 좋아하여 자신을 팔려고 한다고 의심했기 때문에 소인의 말이 쉽게 들어갔던 것이다.⁵⁵⁾

1월 21일에도 주장에서 「谷風章』의 내용으로 토론한 바,

시독관 정만화: 위태롭고 어려울 때는 더불어 서로 찾다가 편안하고 즐거운 때는 잊어버리듯이 내버리는데 이것이 비록 民俗의 노래를 읊은 시이지만 실로 風教가 더러우나 융성하나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니, 깊이 살펴야 할 곳입니다.

효종: 무릇 人情이 憂患에서는 함께 힘을 모으면서 安樂할 때는 갈라지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검토관 李萬雄: 句踐의 일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효종: 우환 속에서는 마음을 굳게 먹고 참으면서 항상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지키기 때문에 우환을 함께 하기는 쉬운 것이다.

만옹: 편안할 때는 서로 좋아하다가 우환에 처하면 서로 등지는 자도 있으니, 한 가지를 고집하여 말할 수는 없습니다.

효종: 그렇다.⁵⁶⁾

55) 『朝鮮王朝實錄』 孝宗. 8年 1月 20日(癸亥) 卷18. 冊36. p.75.

56) 『朝鮮王朝實錄』 孝宗. 8年 1月 21日(甲子) 卷18. 冊36. p.75.

동월 26일과 28일 『大東章』을 시독관 정만화, 지경연 정유성 등과 같이 낭독하고, 정만화가 효종에게 글의 내용을 거울삼아 실천할 수 있기를 건의하였다.⁵⁷⁾ 1월 29일에는 『四月章』을 읽었다. 그 후 2월, 3월에는 독서를 실시하지 않았으며, 4월 4일에는 우부승지 兪瑒의 건의로 경연에 한 명만 입시켰던 것을 앞으로는 좌우 2명을 입시하도록 경연제도를 수정하고, 4월 18일 『北山章』, 19일 『無將大車章』, 29일 『小明章』을 시독관 李萬雄, 지경연 홍명하와 함께하였다. 5월에도 2일만 주강을 실시하였다. 5월 12일과 14일엔 『楚茨章』을 지경연 鄭維城, 시독관 李萬雄과 같이 하고 다시 휴강에 들어갔다. 5월 중순 이후 7월까지 1회도 없었다. 8월에 다시 독서를 시작하였다. 8월 5일에 5월에 읽다가 중단한 『楚茨章』을 읽고, 6일엔 『信南山章』, 14일 『信南山』과 『甫田章』, 18일 『大田章』을 읽고 시독관과 담론을 실시하였다.

시독관 李殷相: 唐太宗이 메뚜기를 삼킨 일이 비록 가식적인 듯 하지만 그래도 ‘메뚜기가 재앙을 끼치지 않았다.’고 하였으니 감응의 효험을 볼 수 있습니다.

효종: 사기도 모두 믿을 수는 없다. ‘宋太宗이 스스로를 불태우고자 하자 이날 저녁에 비가 내렸다.’고 하였으나 만일 스스로 그 몸을 불태워 버리고 말았다면 혹시라도 감응이 있을 수 있지만 단지 빈말을 해본 것뿐인데 어떻게 금방 감응이 이루어지겠는가. 하늘을 속일 수 있겠는가. 당시 사관이 이같이 썼으니 참으로 가소로운 일이다.

이은상: 송 태종은 반드시 성실한 임금이 아닐 것입니다.

효종: 도성 사람들이 태자를 보고 소년 천자라고 일컫자 태종이 말하기를 ‘나는 어데다 두고’라고 하였다.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도 이와 같은데 그에게 과연 성심이 있었겠는가.⁵⁸⁾

위의 내용에서 송태종에 대한 이야기와 사관을 비평한 내용이다. 이와 같이 효종은 『詩經』을 읽으며, 상당히 많은 토론을 실시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8월 24일에는 『瞻彼洛矣』와 『裳裳者華』 등을 찬선 송준길, 시독관 李殷相 등과 함께하였으며, 28일엔 『桑扈』와 『鴛鴦章』을 읽었다. 9월에는 5일간 주강을

57) 『朝鮮王朝實錄』 孝宗. 8年 1月 28日(辛未) 卷18. 冊36. p.77.

58) 『朝鮮王朝實錄』 孝宗. 8年 8月 18日(戊子) 卷19. 冊36. p.111.

열었다. 5일 「頰弁章」을 읽고 그 내용에 대해 찬선 송준길과 담론을 하였으며,⁵⁹⁾ 6일 「靑蠅章」, 25일, 26일 「賓之初筵章」을 지경연 허적과 시강관 민정중(응고) 등이 음주의 폐단에 대해 논하였다. 30일에는 8월 28일에 읽은 「桑扈章」을 참찬관 權堦와 함께하였다.

10월은 주장 7회, 석강 2회, 소대 3회를 실시하였다. 6일 주장에서는 「角弓章」의 내용으로 송준길, 검토관 金壽興 등과 함께 오랜 시간 동안 담론하였으며,⁶⁰⁾ 7일에는 「角弓章」으로 진선 권시, 시독관 趙復陽, 동지경연 洪命夏 등과 토론하였다. 8일 주장에서는 「都人士章」을 읽고 예조 판서 鄭致和, 시강관 조복양 등과 연회의 물품·절차와 예악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9일에는 「采綠章」과 「黍苗章」를, 13일 주장에서는 실록에 『詩傳』이란 책명만 기재되어 있고 ‘편명’은 기록되어 있지 않다. 효종은 그 날 『詩經』 권15 「隰桑」이나 「白華」까지 읽고 완독하지 못하고 중단한 것으로 보인다. 13일 석강부터 『心經』⁶¹⁾을 宋浚吉과 함께 읽고 토론하였으며, 14일 석강에도 역시 송준길과 함께하였다.⁶²⁾

10월 19일 옥당의 강관을 소대하여 『心經』을 읽으며 송준길, 시강관 조복양과 李滉의 <聖學十圖>에 대한 李珥와의 논변에 대한 내용 등으로 토론하였으며,⁶³⁾ 다음 날 20일에도 주장과 소대에서도 『心經』으로 송준길, 조복양과 함께 하였다. 10월 21일 주장 『心經』, 25일 소대에서도 송준길과 『心經』을 읽고 효종이 장자와 노자 중 어느 쪽이 더 우월한가에 대한 질문으로 담론이 시작되었다.⁶⁴⁾ 이와 같이 10월엔 효종은 거의 송준길과 마주하여 독서토론하면서 시국에 대한 얘기를 많이 나누었다. 그 결과 송준길은 지쳤는지 11월 1일 휴가를 청하였다. 그러나

59) 『朝鮮王朝實錄』 孝宗. 8年 9月 5日(甲辰) 卷19. 冊36. p.114.

60) 『朝鮮王朝實錄』 孝宗. 8年 10月 6日(乙亥) 卷19. 冊36. p.117.

61) 송대 진덕수가 여러 책을 모아 편집하고, 명대 程敏政이 주석을 붙여 편찬한 책으로 내용은 『서경』(1장)·『시경』(2장)·『역경』(5장)·『논어』(2장)·『중용』(2장)·『대학』(2장)·『예기』樂記편(3장)·『맹자』(12장)의 29장이 실려 있고, 다음에 송나라 도학자들의 글로는 周敦頤의 「養心說」과 「通書」·「聖可學章」, 程頤의 「四箴」, 范浚의 「心箴」, 朱熹의 「敬齋箴」·「求放心齋箴」·「尊德性齋箴」 등으로 구성되었다.

62) 『朝鮮王朝實錄』 孝宗. 8年 10月 14日(癸未) 卷19. 冊36. p.119.

63) 『朝鮮王朝實錄』 孝宗. 8年 10月 19日(戊子) 卷19. 冊36. p.119.

64) 『朝鮮王朝實錄』 孝宗. 8年 10月 25日(甲午) 卷19. 冊36. p.120.

효종은 그 휴가를 거절하였다. 그 사유를 보면,

“찬선 송준길이 소를 전달해 휴가를 청했는데, 답하였다. 그대의 사세의 절박함을 모르는 바 아니나, 나의 생각을 이미 경연에서 효유하였다. 다만 생각건대, 동궁을 보필하여 이끌어 주는 일은 하루가 급하고, 또 지금 경연에서의 글도 나이 어린 사람들이 상세하게 해석할 수 있는 바가 아니다. 그대가 만약 있지 않는다면 그 서적이 강하지 않은 것과 다름이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선왕조 때 부제학 鄭經世가 『論語』 한 부를 처음부터 끝까지 진강한 고사에 따라 특별히 講席에다 그대를 두게 하고자 한 것은 참으로 이 때문이었다. 다시 전달하여 나의 뜻을 외롭게 하지 말라.”⁶⁵⁾

효종은 송준길을 신임하면서부터 경연에서의 토론도 시간가는 줄 모르고 즐거하였다. 11월 12일 소대에서 『心經』 『庸信庸謹章』과 『敬直義方章』 두 장을 강하고 송준길, 조복양 등이 당론문제와 신하의 의심문제를 논하였으며, 13일 소대에서는 『心經』의 내용 중 ‘養氣’를 논하는 설에 대하여 송준길, 조복양, 조극선 등이 토론하였다.⁶⁶⁾ 11월에는 소대만 2회 하고 마쳤다. 12월에도 4일과 13일 소대만 송준길, 조복양, 검토관 金壽興 등을 불러 『心經』을 읽었다. 13일에는 소대에서 송준길은 낙향의 뜻을 전했으나 승낙을 받지 못했다.⁶⁷⁾ 다음 해 효종 9년(1658) 1월 15일(옥당강관)에도 효종은 송준길, 시강관 李端相과 함께 心經의 내용 중 元 世宗이 許衡을 예우한 일으로 토론을 실시하였다.⁶⁸⁾ 다음날 인 16일에는 시독관 李時術, 승지 서필원과 함께 ‘懲忿窒慾’이 설에 대해한 질의응답,⁶⁹⁾ 20일에는 다시 송준길을 소대하여 ‘仁和恕’의 차이점을 질문하면서 소동이 시작되었다.⁷⁰⁾ 9년 1월에는 3강이 1회도 없었다. 대신 소대만 3회 실시하면서 독서방법은 내용을 읽고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하고, 질의응답 형식을 취하였다. 2월에는 소대 2회, 석강 2회 주강 1회를 실시하였다. 19일 소대에서는 심경의 내용 중 ‘입으로

65) 『朝鮮王朝實錄』 孝宗. 8年 11月 1日(己亥) 卷19. 冊36. p.122.

66) 『朝鮮王朝實錄』 孝宗. 8年 11月 13日(辛亥) 卷19. 冊36. p.129.

67) 『朝鮮王朝實錄』 孝宗. 8年 12月 13日(辛巳) 卷19. 冊36. p.132.

68) 『朝鮮王朝實錄』 孝宗. 9年 1月 15日(壬子) 卷20. 冊36. p.136.

69) 『朝鮮王朝實錄』 孝宗. 9年 1月 16日(癸丑) 卷20. 冊36. p.137.

70) 『朝鮮王朝實錄』 孝宗. 9年 1月 20日(丁巳) 卷20. 冊36. p.137.

말하는 것이 몸으로 행하는 것만 못하다.’는 구절로 송준길, 시장관 李端相과 대담하였으며, 토론하는 중 송준길의 낙향을 결정하였다.⁷¹⁾ 24일 소대에서는 『心經』 독서를 마치고 효종은 낙향한 송준길이 궁금했는지 이단상과 다음과 같이 그에 대한 얘기를 주고받았다.

효종: 송준길이 떠나갈 적에 무슨 말을 하던가?

시장관 李端相: 신이 잠시 만나 본바 ‘성상의 은레가 시종 이렇게 융중한데, 스스로 추어낼 힘만 있다면 어찌 다시 올 생각이 없을까마는, 다만 시늉고 잔약함이 이 같으니 기필할 수가 없다.’ 하였습니다.

효종: 송시열에게 봄날이 온화해지는 대로 올라오라고 하였다. 올라오기 싫을 것 같으면 반드시 소를 올려 진정을 개진했을 것인데, 지금 봄철이 이미 절반을 넘어서도록 아무 소식이 없는 것을 보니, 아마도 뜻을 바꾸려는 생각이 있는 듯하다. 다만 청나라 사신이 곧 도착할 것이라는 이유로 중지 하거나 않겠는가. 이것이 염려스럽다.⁷²⁾

지난해 11월 1일 송준길이 고향의 산소를 신축한다고 휴가를 청했으나 허락하지 않은 효종은 금년 2월에 허락하고 자신의 말동무인 송시열을 초청한 것이다. 2월 28일에는 오랜만에 석강을 실시하였다. 당시 시장관 조복양, 진선 권시가 참여하여 『心經』 내용 중 ‘안자의 극기는 이글거리는 화못불 속의 한 점 눈과 같다.’라는 것과 ‘忠과 恕’의 미를 묻는 효종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마무리 하였다.⁷³⁾ 동월 29일에도 『心經』으로 석강을 열었으며, 30일에는 주강을 실시하였다. 3월에는 25일 단 1회만 주강을 열어, 『心經』 중 ‘喜怒哀樂未發’이라는 내용으로 권시와 함께 하였다.⁷⁴⁾ 4월에는 3강은 없었으며, 23, 24, 25일 연 3일간 시독관 조복양, 참찬관 韓震琦 등과 소대만을 실시하였으며, 5월은 2, 3, 4, 28, 29, 30일 시독관 조복양 등 경연관을 소대하여 4일 『대학연의』만 제외하고 『心經』을 읽었다.

6월 1, 7, 8일 3회 옥당의 강관들과 『心經』으로 소대를 하였다. 1일에는 시독관

71) 『朝鮮王朝實錄』 孝宗. 9年 2月 19日(丙戌) 卷20. 冊36. p.138.

72) 『朝鮮王朝實錄』 孝宗. 9年 2月 24日(辛卯) 卷20. 冊36. p.139.

73) 『朝鮮王朝實錄』 孝宗. 9年 2月 28日(乙未) 卷20. 冊36. p.140.

74) 『朝鮮王朝實錄』 孝宗. 9年 3月 25日(壬戌) 卷20. 冊36. p.141.

趙龜錫 등과 소대에서 『心經』을 읽은 뒤

시독관 趙龜錫: 신이 엇그제 망령되어 소건을 아뢰자, 성상의 비답이 매우 엄하시었고, 심지어는 양사의 계사에 대한 비답에 ‘무식하다’느니 ‘임금을 견제한다’느니 하는 등의 말씀으로 하교하셨는데, 대간을 대하는 도리가 너무나 박절하지 않습니까?

효종(화를 내며): 근래에 인심이 야박하고 사나위 여염에서 형제간에 상이 나오게 보지도 않는 자가 있는 것을 보고 평소 개탄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번엔 신하들 모두가 내가 대군의 상에 친히 가보는 것을 옳지 않게 여기고 있으니, 내 감히 행하지 못하겠다. 고급에 여찌 이 같은 강한 신하가 있었겠는가. 우리나라의 《오례의》에 실려 있는 예는 모두 거행할 것이다. 그것도 앞으로 저지할 셈인가?

(신하들이 감히 다시 말하지 못하였다.)⁷⁵⁾

그 후 8월말까지 독서하지 않았으며, 9월에도 초하루만 송시열, 송준길만 대면하고 독서하지 않았다. 오랜만에 만난 송준길, 송시열과 시간가는 줄 모르고 건강문제, 국정문제 등 서로 허물없이 소통하였다.⁷⁶⁾ 10월에는 25, 26일 양일간 송준길, 송시열을 소대하여 『心經』을 읽었으며, 11월 2일에는 시독관 李端相의 건의로 陸來善의 집에 있던 이황이 변증한 『心經』 한 질을 홍문관(부응교 이경휘, 부수찬 민유중)에서 갔다가 장정을 새롭게 한 뒤 효종에게 바쳤다.⁷⁷⁾ 이 책은 程敏政이 程朱의 설을 모아 주를 붙혀 간행한 것을 이황이 변증하고, 방점을 찍어 중요한 곳을 표시해놓은 책이다. 11월 16일 소대에서는 심경의 ‘非禮勿視’라는 부분을 주제로 송시열, 송준길 등과 열띤 질의응답을 실시하였다.⁷⁸⁾ 11월 21일에는 송시열, 송준길을 불러 『心經』의 ‘惟酒無量’에 대해 얘기하면서 술의 폐단과 금주를 희망하는 말을 하였다.

송시열: 이 ‘술 마시는 데에는 양이 없었다.[惟酒無量]’의 量 자는 정해진 양이 없다는 뜻입니다. 일찍이 듣건대 성상께서는 세자가 되신 후로는 절대로 술을 가까이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지금도 그렇습니까?

75) 『朝鮮王朝實錄』 孝宗. 9年 6月 1日(丁卯) 卷20. 冊36. p.147.

76) 『朝鮮王朝實錄』 孝宗. 9年 9月 1日(乙未) 卷20. 冊36. p.151.

77) 『朝鮮王朝實錄』 孝宗. 9年 11月 2日(乙未) 卷20. 冊36. p.157.

78) 『朝鮮王朝實錄』 孝宗. 9年 11月 16日(己酉) 卷20. 冊36. p.160.

효종: 내가 세자가 된 뒤에는 절대로 술을 마시지 않아서 지금은 마시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다.

송시열: 그러나 그 마음은 순식간에 방종해지기 쉬운 것이니 시종 경계하여 삼가도록 하소서.

효종: 경의 말이 좋다. 술을 잘 마시는 사대부들이 모두 나와 같이 술을 끊는다면 다행이겠다. (이하 생략)⁷⁹⁾

12월 17일 강관 및 송시열, 송준길 등을 소대하여 심경을 읽고, “人皆有不忍人之心 ; 사람은 모두 다른 사람에게 차마 하지 못하는 마음을 지니고 있다.”라는 구절로 열띤 토론을 하였다.⁸⁰⁾ 다음 날에도 『心經』 ‘붙잡으면 있게 되고 놓아버리면 없어진다(操則存 舍則亡).’는 대목으로 이조 판서 송시열과 참찬관 沈光洙, 시독관 金壽興 등과 토론하였으며,⁸¹⁾ 12월 19일 소대에서 『心經』을 읽으며, ‘이를 부끄럽게 여긴다면 仁을 행하는 것만 같지 못하다.’는 주제로 송시열, 송준길, 참찬관 심광수 등과 토론하였다.⁸²⁾ 또한 12월 27일에도 ‘牛山の 나무가 일찍이 아름다웠었다.’는 구절로 송시열, 참찬관 김수항(金壽恒), 심광수 등과 토론하는 것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였다.⁸³⁾

이상의 내용을 볼 때 효종은 송준길, 송시열을 만나면서부터 독서토론을 자주 하였으며, 형식적이 아니라 진지한 모습으로 토론하였음을 알 수 있다.

효종 10년은 생을 마감한 해이다. 1월에 소대를 3회, 2월에는 4회를 실시하고 3월에는 휴강이었다. 윤3월 들어 소대 5회, 4월엔 소대 4회와 주강 3회로 과목은 역시 심경 한 책이었다. 4월 들어 모처럼 실시한 주강도 소대도 모두 마지막 독서였다. 2월 8일 송준길은 다음과 같이 효종에게 건의하였다.

송준길: 대간은 임금의 귀와 눈과 같으므로 마땅히 자주 접촉해서 각기 간직하고 있는 생각을 전달하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옛 규례에는 단지 조강에만 대간이 참석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아침 경연이 매우 드물어 대간이 접촉할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앞으로는 조강·주강·석

79) 『朝鮮王朝實錄』 孝宗. 9年 11月 21日(甲寅) 卷20. 冊36. p.161.

80) 『朝鮮王朝實錄』 孝宗. 9年 11月 17日(己卯) 卷20. 冊36. p.166.

81) 『朝鮮王朝實錄』 孝宗. 9年 12月 18日(庚辰) 卷20. 冊36. p.167.

82) 『朝鮮王朝實錄』 孝宗. 9年 12月 19日(辛巳) 卷20. 冊36. p.167.

83) 『朝鮮王朝實錄』 孝宗. 9年 12月 27日(己丑) 卷20. 冊36. p.169.

강에 아울러 돌아가며 차례대로 참석하게 하소서.

효종: 조강·주강·석강에 의례적으로 참석할 필요는 없고, 인견이나 소대 등을 할 때에 입시하여 진달하는 것이라면 괜찮다.⁸⁴⁾

실제 송준길은 효종이 소대만 하고 3강은 실시하지 않으므로 대간들을 참여시킨다는 명목으로 3강을 실시토록 한 것이다. 그러나 효종은 그 동안 3강을 전폐하고 소대만 실시해 왔다. 성미가 급해 대간들을 자주 만나면 좋은 소리 듣지 못하고 요즈음 용어로 스트레스만 더 쌓이는 것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 대간들을 회피한 것으로 판단된다. 2월엔 소대만 4회하고 3월에는 휴강에 들어갔다. 4월 들어서는 소대 4회, 그동안 실시하지 않던 주강을 3회나 실시하였다. 4월 5일 심경의 내용 중 公都子가 '혹 大人이 되기도 하고, 小人이 되기도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대목으로 송시열과 질의응답을 하였다.⁸⁵⁾ 당시만 해도 송시열과 서로 자주 의견을 주고받고 하였는데, 이 날이 송시열과는 마지막 진지한 대화였던 것이다. 그 후 8, 9일 소대와 13, 16, 17일 3회 주강을 하고 20일 효종은 홍문관의 경연관을 불러 『心經』을 읽고 난 뒤 경연관들에 의해 다음과 같이 자신의 언행과 대내의 일 등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었다.

참찬관 俞樾: 임금의 말은 신중을 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한 글자 한 글귀도 관계되는 것이 매우 중대한 것인데 어제 諫臣에게 내린 비답에 업신여기고 회롱하는 뜻이 현저하였습니다. 그 사람이 비록 미관말직에 있을지라도 이름이 諫官이니, 大聖人이 널리 포용하는 도량에 있어 이렇게 하시는 것은 부당한 것 같습니다. 신은 아주 가까운 자리에 있는 몸이므로 품고 있는 생각을 감히 진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효종: 그 말이 옳다.

검도관 金萬均: 閭巷에 전하는 이야기를 다 믿기는 어렵지만 들리는 바에 의하면 大內에서 외간에 나아가 花草를 구하여 오고 江上에 가서 材木을 가져 온다고 하는데 과연 이런 일이 있습니까? 있으면 고치시고 없으면 더욱 면려하소서.

효종: 나는 이런 일이 없다. 그대는 近侍로 있으면서 이런 말을 하니, 내가 매우 가상하게 여긴다.⁸⁶⁾

84) 『朝鮮王朝實錄』 孝宗. 10年 2月 8日(己巳) 卷21. 冊36. p.173.

85) 『朝鮮王朝實錄』 孝宗. 10年 4月 5日(乙未) 卷21. 冊36. p.188.

86) 『朝鮮王朝實錄』 孝宗. 10年 4月 20日(庚戌) 卷21. 冊36. p.190.

위의 글은 경연관들과 마지막 『心經』을 읽고 대화한 내용이다. 그 후 4월 27일에 효종은 머리에 작은 종기가 돌아 약물치료를 받았으나 다음날 28일 독이 얼굴에 퍼져 눈을 뜰 수 없을 지경으로 번졌다. 5월 4일엔 종기가 더욱 심해지자 약방 도제조 元斗杓, 제조 洪命夏, 도승지 趙珩 등 입회하에 申可貴에게 침을 놓도록 했다. 그러나 침구멍에서 지혈이 되지 않아 결국 昌德宮 大造殿에서 숨을 거두었다.⁸⁷⁾

결국 효종은 『心經』을 완독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것이다. 당시 경연을 담당 한 부제학은 呂爾徵(즉위년 초), 趙壽益(즉위년 8월 4일, 4년 3월 21일, 4년 윤7월 21일, 동 9월 5일, 동 12월 14일, 5년 12월 26일, 8년 7월 7일), 閔應亨(즉위년 12월 20일, 1년 7월 1일, 1년 8월 9일, 12월 25일, 3년 4월 3일, 8년 6월 23일-14일 근무), 李行遇(1년 11월 1일), 蔡裕後(1년 11월 17일, 2년 5월 19일), 趙錫胤(1년 1월 25일, 1년 6월 5일), 申冕(2년 3월 20일), 李之恒(2년 6월 9일), 李一相(3년 2월 14일, 3년 12월 4일, 7년 12월 26일), 金益熙(3년 6월 20일, 4년 4월 16일, 6년 2월 30일, 동년 9월 25일), 愼天翊(3년 12월 22일-4년 1월 27일 사직, 4년 7월 13일, 5년 7월 27일, 동 8월 10일, 7년 8월 14일), 洪命夏(5년 4월 18일), 金佐明(7년 12월 4일-22일간 근무), 金壽恒(9년 7월 27일, 동년 11월 3일), 尹文舉(10년 3월 18일) 등 총 15명이다. 이들은 보통 1년에 2회에서 6회까지 교체되었으며, 일정한 기간을 두고 재임되는 경우가 많았다(원팔호는 임용연월일). 독서의 장소는 주로 宣政殿으로 하였다.

이상으로 효종의 독서행태를 일정별로 살펴보았다. 그는 왕위에 오르면서 『中庸』을 선정하여 즉위년 10월 23일부터 효종 1년 1월 26일까지 완독하였으며, 효종 1년 2월 9일 『書傳』을 시작하여 효종 5년 1월 9일 5년 만에 완독하였다. 같은 해 1월 23일 『詩傳』 서문부터 시작하여 재위 8년 10월 23일까지 읽었으나 완독하지 못했다. 총권 20장 중 권15 「都人士之什篇」의 「黍苗」까지만 읽었다. 같은 날 야대에서 읽어 왔던 『心經』을 석강부터 읽기 시작하여 재위 10년 4월 20일까지 읽었다. 또한 『大學衍義』는 석강이나 소대과목으로 선정하여 7년 11월 10일까지 한 책만 읽었던 것이다.

87) 『朝鮮王朝實錄』 孝宗. 10年 5月 4日(甲子) 卷21. 冊36. p.191.

3. 讀書回數

3.1 朝講

선왕들과 같이 효종도 경연제도를 재정비하고 3강을 실시하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형식적인 생활로 전락하고 말았다. 우선 조강부터 보면(<표 1> 참조) 거의 실시하지 않았다. 효종은 재위 10년 동안 총 20회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즉위년 0회, 1년 3회, 2년 4회, 3년 4회, 4년 2회, 5년 5회, 6년 1회, 7년 1회, 8년 0회, 9년 0회, 10년 0회 등이다. 조강은 모든 중신들이 참여하여 왕의 독서와 문답 및 토론은 물론 정치적인 담론을 하는 자리인데 조강을 자주 하지 않았다는 것은 왕의 자질에도 문제가 있다. 물론 본 데이터는 실록에 기록된 바를 근거로 산출한 것이나 조강에는 반드시 사관이 참여하여 그 경연내용을 기록함으로 본 근거가 사실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조강에서 읽은 책은 『中庸』, 『書傳』, 『詩傳』이 전부다.

<表 1> 朝講年月別回數

月 年度	1	2	3	4	5	6	7 (윤)	8	9	10	11	12	計	累計
즉위	-	-	-	-	-	0	0	0	0	0	0	0	0	0
1	0	0	0	0	0	2	0	1	0	0	0	0	3	3
2	0	0	0	2	1	1	0	0	0	0	0	0	4	7
3	0	0	1	0	1	1	1	0	0	0	1	0	4	11
4	0	0	0	0	0	0	(2)	0	0	0	0	0	2	13
5	1	0	0	1	3	0	0	0	0	0	0	0	5	18
6	1	0	0	0	0	0	0	0	0	0	0	0	1	19
7	0	1	0	0	0	0	0	0	0	0	0	0	1	20
8	0	0	0	0	0	0	0	0	0	0	0	0	0	20
9	0	0	0	0	0	0	0	0	0	0	0	0	0	20
10	0	0	0	0										20
총회수	2	1	1	3	5	4	3	1	0	0	1	0	101	20

3.2 晝講

조강을 거의 실시하지 않은 효종은 주장에 경연관 및 참찬관들과 함께 경연에서 독서 및 독서토론, 국정논의 등을 간간히 실시하였다. 주강을 연도별로 보면 즉위년 23회, 1년 55회, 2년 42회, 3년 64회, 4년 50회, 5년 51회, 6년, 43회, 7년 23회, 8년 30회, 9년 2회, 10년 1회 등으로 재위 10년간 총 384회를 실시하였다. 이 중 가장 많이 실시한 년도는 집권 중반기인 재위 3년이다. 말년으로 가면서 거의 주장에서의 독서는 하지 못했다. 그 원인은 효종의 성격이 급하고 다혈질인 관계로 경연관들의 대면을 꺼려했던 것으로 보인다. 결국 효종은 재위 말년으로 가면서 주강은 거의 실시하지 않고 본인과 가장 친밀감이 있는 송준길, 송시열 등을 자주 소대하여 독서하고 토론하곤 하였다. 주장에서 읽은 책은 『中庸』, 『書傳』, 『詩傳』, 『心經』 등이었다.

<表 2> 晝講年別回數

年度 \ 月	1	2	3	4	5 (윤)	6	7 (윤)	8	9	10	11 (윤)	12	計	累計
즉위										3	10	10	23	23
1	7	5	0	0	4	6	6	5	1	5	12 (4)	0	55	78
2	4	6	0	3	4	6	7	4	4	4	0	0	42	120
3	9	7	8	6	7	2	0	4	4	7	9	1	64	184
4	0	11	10	2	0	0	(6)	6	6	8	1	0	50	234
5	3	10	3	14	6	1	0	3	3	4	4	0	51	285
6	6	5	0	7	8	1	0	5	0	6	2	3	43	328
7	2	1	4	0	1 (2)	0	5	3	3	2	0	0	23	351
8	7	0	0	3	2	0	0	7	5	6	0	0	30	381
9	0	1	1	0	0	0	0	0	0	0	0	0	2	383
10	0	0	0	1									1	384
총회수	38	46	26	36	34	16	24	37	26	45	42	14		384

3.3 夕講

석강에서는 조강과 주강에서 읽은 책이 아니라 별도의 책을 선정하여 독서하는 제도이다. 효종의 경우 부왕인 인조가 선정하여 읽었던 대학연의로 독서하였다. 그러나 효종은 전혀 석강을 실시하지 않았다. <표>에서 보듯이 10년간 총 40회이다. 평균 1년에 4번꼴이 된다. 생각나면 경연관을 불러 조금씩 『大學衍義』를 읽고 시간을 보낸 관계로 완독하지 못하고 생을 마감한 것이다.

<表 3> 夕講年月別回數

月 年度	1	2	3	4	5	6	7 (윤)	8	9	10	11	12	計	累計
즉위										0	0	0	0	0
1	0	0	0	0	3	5	1	0	0	0	0	0	9	9
2	0	0	0	2	0	2	2	0	0	0	0	0	6	15
3	0	0	2	2	2	0	0	1	0	0	0	0	7	22
4	0	0	2	0	0	0	(1)	0	0	0	0	0	3	25
5	0	0	3	2	3	0	0	0	0	0	0	0	8	33
6	0	0	0	2	1	0	0	0	0	0	0	0	3	36
7	0	0	0	0	0	0	0	0	0	0	0	0	0	36
8	0	0	0	0	0	0	0	0	0	2	0	0	2	38
9	0	2	0	0	0	0	0	0	0	0	0	0	2	40
10	0	0	0	0									0	40
총회수	0	2	7	8	9	7	4	1	0	2	0	0		40

3.4 夜對 및 召對

야대나 소대는 경연에서 부족한 부분을 복습하거나 예습할 경우 경연관 및 친밀한 문신을 불러 독서하고 토론하는 제도이다.

효종의 소대 회수는 총 75회로 재위 년도 별로 보면 즉위년 0회, 1년 8회, 2년 7회, 3년 6회, 4년 0회, 5년 1회, 6년 0회, 7년 5회, 8년 7회, 9년 25회, 10년 16회로

나타났다. 소대 역시 거의 실시하지 않다가 재위 말년에 가서 송준길, 송시열 등과 『大學衍義』, 『心經』이란 책으로 읽고 토론하곤 하다가 10년 5월에 생을 마감하였다.

<表 4> 夜對 및 召對年月別回數

年度 \ 月	1	2	3 (윤)	4	5	6	7	8	9	10	11	12	計	累計
즉위										0	0	0	0	0
1	0	0	0	3	0	0	4	0	0	1	0	0	8	8
2	1	3	0	0	2	0	0	1	0	0	0	0	7	15
3	0	2	1	0	0	0	0	1	0	0	0	2	6	21
4	0	0	0	0	0	0	0	0	0	0	0	0	0	21
5	0	0	0	0	0	1	0	0	0	0	0	0	1	22
6	0	0	0	0	0	0	0	0	0	0	0	0	0	22
7	0	0	2	0	0	2	0	0	0	0	1	0	5	27
8	0	0	0	0	0	0	0	0	0	3	2	2	7	34
9	3	2	0	3	6	3	0	0	0	2	2	4	25	59
10	3	4	(5)	4	-	-	-	-	-	-	-	-	16	75
총회수	7	11	8	10	8	6	4	2	0	6	5	8		75

4. 孝宗의 性格 및 讀書態度

효종 집권초기에는 건강이나 기후환경 등에 적용받지 않고 열심히 독서하는 자세를 보였다. 특히 어려운 부분에서는 질문도 하고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여 반성의 기미도 보였다. 그러나 점차적으로 시간이 흐르면서 공적인 생각보다는 사적인 감정을 앞세우기 시작했으며, 독서할 의지도 상실되고 3강을 제대로 수행하려고 하지도 않았다. 실제로 효종은 독서에 대한 실천의지가 전혀 없었으며, 자신의 성격도 급하여 화를 잘 내고 즉흥적인 행동을 보이곤 하여 신하들이 꺼리는 편이었다. 효종 1년(1650) 10월 13일에는 10일까지 독서를 같이 했던 부제학

閔應亨을 갑자기 추고하고 시독관 趙復陽을 과직하라 하였다. 그 사유는 兪槩를 옹호했다는 것이다.⁸⁸⁾ 유계는 선왕의 묘호를 정할 때(즉위년 5월 23일) ‘仁’자를 쓰는데 반대한 인물이라는 이유로 1년 4월 3일에 귀양을 보냈던 일이 있었는데 그가 죄가 없다고 두둔하자 효종이 화를 내어(민응형은 평일 우대하는 신하지만) 그를 추고하고 趙復陽을 과직하라 한 것이다. 그 뒤 10월 17일 주강에서 『書傳』 「益稷」편의 독서를 마친 뒤에 특진관 洪茂績이 민응형과 조복양을 용서토록 건의하였으나 閔應亨만 과직을 면하고 조복양은 용서받지 못했다.⁸⁹⁾ 이는 곧 개인 감정을 앞세운 처사로밖에 볼 수 없다. 감정의 기복이 심해서 독서태도 또한 좋은 편은 아니었다.

그의 경연에서의 독서태도에 대해 효종 2년(1651) 8월 9일 홍문관 관원인 응교 洪命夏, 교리 李皙, 수찬 吳挺緯, 부수찬 丁彦璧, 閔鼎重 등은 다음과 같이 비판하였다.

“날마다 經筵에 납시기는 해도 긴요한 공부를 하지 않고 의리를 강설하시나 存心養成하는 노력을 보이지 않으며, 남의 말을 널리 들으면서도 시비를 더러 가리지 못하고 사람을 살펴서 쓰고 있지만 어짊과 간사함을 더러 판단하지 못하며, 선을 착하게 여기면서도 실시한 바가 없고 악을 싫어하면서도 단절하는 바가 없습니다. 비록 다스리는 방법을 찾는다는 이름은 있지만 다스린 실효를 얻기는 어렵습니다.” (35책 503면)

이는 수박 겉핥기식 독서일 뿐 아니라 시비를 가리지 못하고, 실천과 판단력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같은 해 11월 7일에는 정언 吳翮이 유철의 조율문제로 과직된 대사헌 조석운 등을 변론하는 상소 내용 중에 효종의 성격에 대한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하였다. 효종의 성향이 첫째는 도량이 넓지 못하여 소심하고, 자꾸 화를 내고하는 것은 마음이 안정되지 못하는데서 나오는 것으로 이는 독서부재에 있다는 것이다.⁹⁰⁾ 그의 도서태도에 대해 송시열의 상소내용에서도

88) 『朝鮮王朝實錄』 孝宗. 1年 10月 13日(癸巳) 卷5. 冊35. p.454.

89) 『朝鮮王朝實錄』 孝宗. 1年 10月 17日(丁酉) 卷5. 冊35. p.454.

90) 『朝鮮王朝實錄』 孝宗. 2年 11月 7日(辛巳) 卷7. 冊35. p.515.

잘 나타나고 있다. 효종 3년(1652) 2월 3일 송시열의 상소 내용 중,

“경연에서 講說하는 것도 한갓 형식적으로만 응하시어 聖學에 날로 새로워지는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직언은 듣기 싫어하고 忠賢은 모두 쫓아내어 위아래가 화기애애하게 통하는 때가 없습니다.”⁹¹⁾

이와 같이 문신들이 아무리 충고를 해도 뉘우치는 기색이 전혀 없었다. 그동안 조강을 거의 실시하지 않았던 효종은 4월 12일 모처럼 ‘자정전’에 나아가 조강을 하려고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뜻하지 않게 특진관 윤강이 기다려도 나오지 않자 효종은 크게 화를 내며 조강을 파해 버렸다. 정원에서 옥당의 하리가 직접 가서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사유를 얘기했는데도 효종은 “태만하고 무례한 사람이 버젓이 변명하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하고 이 날 윤강에게 책임을 묻도록 하였다. 이러한 사실만 봐도 효종이 상당히 성미가 급한 처사로 보인다. 게다가 12일 석강에 『大學衍義』를 읽은 뒤에 정원에서 다시 대관의 추고를 반대하자 계초를 찢으면서 화를 내는 기사를 보면 더욱 그의 성격을 알 수 있다. 실록의 내용에,

정원: 臺官은 庶官과 차별이 있는데 윤강의 잘못을 논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특별히 명하여 파직 추고하도록 한 것은 대관을 대우하는 도리가 아닙니다.

효종: (화를 내면서 입시한 승지 金佐明에게 이르기를): 이 계사를 그대로 알고 있었는가?

김좌명: 신은 지금 입시하였으므로 아뢴 것이 어떤 내용이었는지 모릅니다.

효종: (啓草를 손으로 찢어 던지면서 큰소리로 이르기를): 저들이 감히 이럴 수가 있는가. 국가에서 臺官을 둔 것은 도로에서 노래나 부르라고 둔 것이 아닌데, 하루 종일 아무 말 없이 감히 糾正하지도 않고 있으니, 臺閣의 풍채가 과연 이렇단 말인가. 임금이 할 말을 다한 대관을 별주려 했을 경우 정원이 간쟁하는 것은 가하지만, 이 같은 대관을 어찌하여 감히 伸救한단 말인가. 정원의 방자하고 거리낌 없는 행위가 진실로 놀랍다. 이어 起草한 승지의 성명을 물어서 아뢰라고 명하였다. (후략).⁹²⁾

91) 『朝鮮王朝實錄』 孝宗. 3年 2月 3日(乙巳) 卷8. 冊35. p.531.

92) 『朝鮮王朝實錄』 孝宗. 3年 5月 12日(壬午) 卷8. 冊35. p.554.

그리고 그 다음날 13일에도 효종은 화가 풀리지 않았는지 특진관들이 경연을 싫어하는 것 같으므로 가까운 신하들과 때때로 召對나 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현하고 이후부터는 경연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고 하였다.⁹³⁾ 그 후 효종은 3강보다는 召對를 위주로 독서 및 토론을 실시하였다.

효종 3년 5월 13일 주강을 마친 시독관 이태연과 검토폰 홍처대 등과 어제의 일(12일)에 대해 다시 얘기를 꺼냈다.

시독관 李泰淵과 검토폰 洪處大: 어제 정원이 아뢴 말이 비록 성상의 마음을 거스르기는 하였지만, 화낼 일은 저들에게 있는데 어찌 지나치게 겉으로 나타낼 필요가 있겠습니까.

효종: 혈기가 치우친 것은 나의 흠이다. 그대들의 말이 옳다.

참찬관 朴長遠: 아침에 경연에 대하여 품계하지 말라는 명이 있어서 신들은 황공하고 민망할 뿐이었는데, 바로 들으니 인대할 때에 연신의 말에 따라 즉시 계품할 것을 윤허하셨다고 합니다. 구름에 가리었던 해와 달이 다시 밝아지듯 성상께서 짧은 시간 내에 깨달으시고 시정하시니, 신하들 중에 누가 감격하여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효종: 이일상이 아뢴 말이 매우 불가했기 때문에 내가 비록 물리쳤다는 그대들은 이 일을 다시는 껄넘치 말고 생각한 바가 있으면 반드시 진달하여 조금도 숨기는 일이 없도록 하라.⁹⁴⁾

효종 자신의 성격에 대해서 잘못이 있다는 것을 시인하고 있으나 좋은 성격은 아닌 듯하다. 효종 3년 10월 17일 주강에서 『소고편』의 독서를 마친 뒤 참찬관이 척연이 발언한 내용을 보면 더욱 포악할 정도의 성격을 보여주고 있다.

“제양이 물려오니 성상께서 근심이 평소보다 훨씬 더하시겠습니까마는, 기쁨과 노여움 사이의 어조는 더욱 살피셔야 합니다. 신이 들건대, 지난번 경연 자리에서 죽인다는 말씀까지 계셨다니, 신은 참으로 놀랍니다.”⁹⁵⁾

위의 내용은 효종의 성격이 아주 극단적인 것으로 묘사되고 있다. 며칠 후 지경연사 이후원도 19일 독서를 마친 뒤 효종에게 ‘왕께서 노여움이 지나치시니

93) 『朝鮮王朝實錄』 孝宗. 3年 5月 13日(癸未) 卷8. 冊35. p.555.

94) 『朝鮮王朝實錄』 孝宗. 3年 5月 13日(癸未) 卷8. 冊35. p.555.

95) 『朝鮮王朝實錄』 孝宗. 3年 10月 17日(乙卯) 卷9. 冊35. p.576.

제앙을 만나 덕을 닦고 허물을 살피는 방도에 어그러지는 듯합니다.’라고 하였으며,⁹⁶⁾ 10월 22일에도 주강에서 동지경연 沈之源, 참찬관 洪命夏 등이 독서를 마친 효종의 성격문제를 거론하였는데, 효종은 ‘기질이 편벽된 것을 고치기 어렵다’고 시인하였다.”⁹⁷⁾ 이에 다음 날 10월 23일 文學 洪蔽의 상소 내용 중에,

“경연을 열어 신하를 대할 때 조금이라도 聖意에 거슬리는 것이 있으면 어조와 안색이 매우 격렬하여 사람을 두려워 떨게 하고, 혹 잘못하여 죄를 범하면 엄히 꾸짖고 깎보고 욕하시니, 이것이 어찌 聖人에게 알맞은 도리이겠습니까.”⁹⁸⁾

이러한 일련의 내용을 보면 효종에게는 독서의 효과가 전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잘못된 성향은 독서를 통해 치유해야 하는데 독서도 열심히 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당시 4년 가까이 경연에서 경연관들과 독서를 해왔으나 효종은 진전된 바가 없었다. 독서를 통해 반성하고 실천에 옮겨야 하는데 그러한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 효종 4년(1653) 3월 4일 홍문관에서 차자를 올린 내용에서 그 사실을 증명하고 있다.

“전하께서 날마다 경연을 열어 학문에 부지런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만, 글을 보고 강독할 때 章句를 어기지 않는 것에 불과할 뿐 덕을 증진시키고 정치에 적용하는 실상은 없다고 하겠습니다.”⁹⁹⁾

위 내용은 효종이 독서할 때 문장 해독에만 집중할 뿐이지 정치에 반영하여 실천하지 않는다는 것을 지적한 것이다.

효종 5년(1654) 5월 11일 조강 후에 참찬관 洪命夏와 호남의 전염병 구휼대책 논의한 다음 사복시 정 沈光洙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었다. 심광수는 발언에서 효종이 말씀하면서 지나치게 감정을 드러낸다는 평을 하였다.¹⁰⁰⁾ 그 말을 들은

96) 『朝鮮王朝實錄』 孝宗. 3年 10月 19日(丁巳) 卷9. 冊35. p.576.

97) 『朝鮮王朝實錄』 孝宗. 3年 10月 22日(庚申) 卷9. 冊35. p.578.

98) 『朝鮮王朝實錄』 孝宗. 3年 10月 23日(辛酉) 卷9. 冊35. p.581.

99) 『朝鮮王朝實錄』 孝宗. 4年 3月 4日(庚午) 卷10. 冊35. p.620.

100) 『朝鮮王朝實錄』 孝宗. 5年 5月 11日(庚子) 卷12. 冊35. p.670.

효종은 유념하겠다고 했으나 여전히 그대로였다. 같은 해 10월 21일 조정의 상소 내용에,

“(전략) 전하께서는 성인의 덕을 지니시고 총명하시어 날이 밝기도 일어나시어 날마다 경연에 납시어 성현의 훌륭한 교훈을 깊이 강독하지 않는 것이 없으시니 희노애락을 중도에 맞도록 하는 것이 무슨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조회하는 석상에서 갑자기 화를 내시는가하면 우레와 같은 위엄을 부리시어 모르는 사이에 온 조정의 신하들이 기가 꺾여 위축되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후략)”¹⁰¹⁾

하고 강하게 비판한 내용을 올린 것이다. 그러나 효종도 인간인지라 감정의 기복이 심한 것은 사실이다. 효종 8년(1657) 1월 22일 효종은 『蓼莪章』을 낭독하면서 자신의 감정을 다음과 같이 표출하였다.

효종: 시는性情에 근본함으로 사람을 감동시키고 잘못을 반성하도록 한다. 『육아장』은 더욱 사람을 감동시키는 시이다. 국가에 수치가 있는데도 그것을 참으면서 세월을 보내니, 장차 무슨 닳으로 이 세상에서 살겠는가. 시를 읽다가 여기에 이르니,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오열을 금하지 못하였다. 하였다. 상이 매 구절을 읽으면서 목소리가 처량하고 말 뜻이 간절하니, 좌우 문신들이 모두 감동하여 눈물을 흘렸다.¹⁰²⁾

글을 읽고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오열하자 경연관들도 함께 눈물을 흘렸다는 내용을 보면 효종도 정에 약한 왕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래도 여전히 독서의 태도는 고쳐지지 못했다. 효종 8년 5월 점차적으로 글 읽는 시간도 줄어들고 글을 읽어도 변화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자 홍문관에서는 동월 6일 다음과 같은 내용의 차자를 올렸다.

“글을 대하여 강독할 때 의리를 깊이 탐구하여 반드시 자신에게 절실히 공부해야 할 곳을 찾아서 몸과 마음에 체험하시고, 政教에 반영하시되 쉬지 말고 지속

101) 『朝鮮王朝實錄』 孝宗. 5年 10月 21日(丁丑) 卷13. 冊35. p.689.

102) 『朝鮮王朝實錄』 孝宗. 8年 1月 22日(乙丑) 卷18. 冊36. p.75.

“上御書講, 講『詩傳』《蓼莪章》. 上曰: “詩本性情, 故能令人感發懲創, 而至於《蓼莪》, 尤令人感動處也. 國有羞恥, 而含忍度日, 將何顏面, 立於斯世乎? 讀《詩》至此, 不覺嗚咽.” 上每講一句, 聲音悽惋, 辭旨懇惻, 左右莫不感動流涕.”

하며 성실히 행하소서. 위태로운 人心과 은미한 道心이 발현함에 반드시 그 기미를 살펴서 위태로운 인심은 막아서 끊고 은미한 도심은 확충하여 혹시라도 지나쳐버리지 마시고 성의와 정심의 공을 이루소서. 전하께서는 평일 대간의 말에 대해서 혹은 비위를 거스리는 것을 싫어하고, 혹은 과격한 것을 미워하며, 혹은 자기의 의견과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가 의심하고, 혹은 사욕을 따르는가 의심하시므로 오직 용렬하여 말없는 자와 유약하여 일을 제대로 못하는 자가 도리어 그 지위에 오래 있으니 직언을 듣기가 어찌 어렵지 않겠습니까.”¹⁰³⁾

이는 효종의 글 읽는 태도와 성격 및 신하들을 대하는 태도를 엿볼 수 있다. 그 이후에도 홍문관에서 경연을 담당한 관리들은 응교 趙復陽, 부응교 李廷夔, 교리 安後說, 수찬 閔點·鄭萬和, 부수찬 金壽興 등은 효종의 언로문제와 사치풍조 등의 해결을 위해 건의 내용 중에 효종의 성향을 지적하였다.¹⁰⁴⁾

계속해서 다음해인 효종 9년 1월 15일 송준길이 자신을 빗대어 효종의 성격에 대해 잘못됨을 지적한 내용에서 효종 자신도 자신의 성격이 좋지 않다는 것을 시인한 적이 있다.

(전략) 송준길: 신은 성격이 조금하고 거칠어서 평소에 간혹 성을 크게 낼 적이 있는데, 노기가 가라앉으면 아이들에게 가장 부끄러우니, 이는 아마 아이들이 이를 본받을까 두려워서일 것입니다.

효종: 찬선이야 어찌 그렇기야 하겠는가. 나는 성격이 거칠기 때문에 일을 처리하는 사이에 가끔씩 이처럼 발로되곤 한다. 이것이 어찌 찬선이 나가버렸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자신을 잘 알고 있는 효종은 성격을 고치지도 못하고 고치려고 노력도 하지 않았다. 그의 거친 성격으로 인해 독서의 결과가 좋지 않다는 비평만 받게 되었다. 효종 10년(1659) 윤3월 10일에 홍문관에서 당시 효종의 독서태도와 학문의 부족 등을 거론하며, 독서에 힘쓸 것을 권유하였다.¹⁰⁵⁾ 그러나 여전히 3강은 실시하지 않고 경연관 및 송준길, 송시열 등을 자주 소대하여 『心經』을 읽고, 그 내용으로 토론하곤 했으나 안타깝게도 완독하지 못하고 생을 마감하였다. 결과적으로 효종

103) 『朝鮮王朝實錄』 孝宗. 8年 5月 6日(戊申) 卷18. 冊36. p.91.

104) 『朝鮮王朝實錄』 孝宗. 8年 11月 2日(庚子) 卷19. 冊36. p.122.

105) 『朝鮮王朝實錄』 孝宗. 10年 閏3月 10日(庚午) 卷21. 冊36. p.184.

의 독서태도가 좋지 않은 것은 잘못된 성격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화를 자주내고 차분함이 없기 때문에 글을 읽어도 마음에 들어오지 않아 실천의 의지가 부족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5. 結 言

조선조 제17대 왕 효종의 재위 10년간 경연에서 일정별로 독서행태 및 태도에 대해서 조사하여 그의 讀書履歷을 밝혔다.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경연 구분은 조강, 주장, 석강으로 정하였으며, 수시로 강관을 불러 독서 토론할 수 있도록 소대와 야대를 마련하였다. 첫 경연에서 독서할 책은 조강과 주장에서 『中庸』, 석강에서는 『大學衍義』로 결정되었다.

2) 즉위년(1649) 10월 23일 첫 주강을 열었다. 『中庸』 서문부터 읽기 시작하여 효종 1년(1650) 1월 26일까지 체계적으로 독서하였다.

3) 효종 1년(1650)에는 『書傳』을 선정하여 5년(1654) 1월 9일까지 완독하고, 같은 해 1월 23일 『詩傳』 서문부터 시작하여 재위 8년 10월 23일까지 읽었으나 완독하지 못했다. 총권 20장 중 권15 『都人士之什篇』의 『黍苗』까지만 읽었다. 같은 날 야대에서 읽어 왔던 『心經』을 석강부터 읽기 시작하여 재위 10년 4월 20일까지 읽었다.

4) 당시 경연을 담당한 부제학은 呂爾徵, 趙壽益, 閔應亨, 李行遇, 蔡裕後, 趙錫胤, 申冕, 李之恒, 李一相, 金益熙, 愼天翊, 洪命夏, 金佐明, 金壽恒, 尹文學 등 총 15명이다. 이들은 보통 1년에 2회에서 6회까지 교체되었으며, 일정한 기간을 두고 재임되는 경우가 많았다.

5) 조강실시 회수를 보면, 연도별로 즉위년 0회, 1년 3회, 2년 4회, 3년 4회, 4년 2회, 5년 5회, 6년 1회, 7년 1회, 8년 0회, 9년 0회, 10년 0회 등으로 재위 10년 동안 총 20회로 나타났다. 이는 효종이 전혀 아침에 독서할 의지가 없었음을 알 수 있다.

6) 주장의 경우 연도별로 보면 즉위년 23회, 1년 55회, 2년 42회, 3년 64회, 4년 50회, 5년 51회, 6년 43회, 7년 23회, 8년 30회, 9년 2회, 10년 1회 등으로 재위 10년간 총 384회를 실시하였다. 이 중 가장 많이 실시한 년도는 집권 중반기인 재위 3년이다. 말년으로 가면서 거의 주장에서의 독서는 하지 못했다.

7) 효종은 전혀 석강을 실시하지 않았다. 10년간 총 40회로 평균 1년에 4번꼴이 된다. 생각나면 경연관을 불러 조금씩 읽고 시간을 보낸 관계로 『大學衍義』도 완독하지 못했다.

8) 효종의 召對 회수는 재위 년도 별로 보면 즉위년 0회, 1년 8회, 2년 7회, 3년 6회, 4년 0회, 5년 1회, 6년 0회, 7년 5회, 8년 7회, 9년 25회, 10년 16회 등 총 75회로 나타났다. 召對 역시 거의 실시하지 않다가 재위 말년에 가서 송준길, 송시열 등과 『大學衍義』, 『心經』이란 책으로 읽고 토론하곤 하였다.

이와 같이 효종의 독서회수가 부족한 것은 국내외적인 문제도 있으나 효종의 성격이 다혈질로 조그만 일에도 화를 잘 내는 성격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경연에서 특진관들 만나는 것을 싫어했으므로 3강이 형식적으로 이루어 질 수밖에 없었다. 결국 말년에 가서는 공식적인 경연을 실시하지 않고 가까운 신하들 만 불러서 가끔 글을 읽고 토론하는 것으로 마무리 하였다.

<참고문헌>

『承政院日記』.

『經國大典』. 서울: 一志社, 1988.

『增補文獻備考』 영인본. 서울: 명문당, 1985.

『朝鮮王朝實錄(孝宗實錄)』 영인본. 서울: 국사편찬위원회, 1986.

金重權. “朝鮮朝 經筵에서 仁祖의 讀書歷 考察.” 『서지학연구』 제62집(2015. 6). 253-296.

